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448-000009-01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총서 1 수기집

倭政時代 徵用去歸 苦生記

태평양전쟁 실기집

지은이 장윤만

옮긴이 장현자, 김준식

감 수 반병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448-000009-01



공공누리



출처표시



성명표기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총서 1 수기집

倭政時代 徵用去歸 苦生記

태평양전쟁 실기집

지은이 장윤만

옮긴이 장현자, 김준식

감 수 반병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총서 1 수기집

倭政時代 徵用去歸 苦生記

태평양전쟁 실기집

초판 1쇄 인쇄 2019년 12월 13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16일

지은이 장윤만
옮긴이 장현자, 김준식
감 수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발행인 김용덕
발행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
<http://www.ije.or.kr>

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B553448-000006-01

디자인·편집 21세기교육사(디자인21)

이 책에 실린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모든 저작권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유족에게 있으며,
활용 시 재단과 유족 측으로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故장윤만님의
구술 및 관계 기록들을 동생인 장재달님이 등서(謄書)하여 엮은
『대동아전쟁 실기집(大東亞戰爭 實記集)』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료를故장윤만님의 유족 장현자, 김준식님이 옮겨주셨고,
이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반병률 교수님께서 해제·감수하시어
『태평양전쟁 실기집(太平洋戰爭 實記集)』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어휘나 단어 · 내용 등은 오늘날의 말로 풀어쓰되,
원문 자체를 살리기 위하여
이해가 가능한 선에선 일부 1940년대 당시의 문체와 경상도 방언 등은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원본 사료는 별도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회)의 사업을 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추모 및 지원 사업,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조사 및 문화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운영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원회’ 해산 이후 중단되었던 책자 번역·발간 사업을 금년부터 일제 강제동원 출판 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간행하게 되었음에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재단에서 일제 강제동원 출판 사업으로 발간하는 책자는 총 5종으로, ‘위원회’ 당시 일본 내 여러 시민단체들과 관련 연구자 및 개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번역 된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2종(일본어판) 및 구술기록집 2종(일본어판), 그리고 금년 우리 재단이 관계 유족으로부터 원본 기록을 기증 받아 검토·감수 후 출간하게 된 강제동원 수기집 1종(한국어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발간되는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2종은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진상조사(朝鮮人BC級戦犯に対する真相調査)』 및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 포로에 관한 조사(ハワイ捕虜収容所における韓人捕虜に関する調査)』이며, 구술기록집 2종은 『뚝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 했네(ポンポン船に乗って帰る途中、海の幽霊になるところだったよ)』 및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었구나(朝鮮という私たちの国があったのだ)』입니다. 강제

동원 수기집 1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된 후 일본 오키나와(沖繩) 인근 자마미섬(座間味島)에서 미군에게 포로로 잡히셨다가 귀환하신故 장운만님의 이야기를 동생 장재달 님이 필사한 원본 기록 ‘대동아전쟁 실기집(大東亞戰爭 實記集)’을 유족 장현자님으로 부터 전달 받아 『태평양전쟁 실기집(太平洋戰爭 實記集)』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을 우리 재단이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과 일본의 여러 발간위원 및 감수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사업이 ‘위원회’ 당시 출간된 주요 서적의 번역·발간을 넘어서 일제 강제동원 전반에 대한 출판 사업으로 보다 더 확대되고 그 뜻을 계속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 주신故 장운만님의 유족 장현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2019년을 시작으로 중단되었던 ‘위원회’ 발간 책자의 번역 사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일제 강제동원 전반에 대한 다양한 학술자료 및 교육자료 발간 등을 앞으로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도움을 요청 드리며,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들이 강제동원 분야에서 미약하나마 작은 디딤돌이 되어 국내외 많은 연구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진실과 기억의 역사로서 그 몫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용덕

『태평양전쟁 실기집(太平洋戰爭 實記集)』을 옮기며...

나는 최근에 일제의 강제동원에 끌려가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최악의 삶을 살면서 쓰신 우리 아버지의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을 다시 꺼내 읽었다. 아버지의 실기집을 읽는 내내 일제하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겪었던 비참했던 과거사의 당사자가 바로 내 아버지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메여 왔다.

강제동원이란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1937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점령지에서 사람과 자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을 말한다.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수많은 조선 사람들은 군인, 군무원(군부), 성노예자(위안부), 군수공장이나 탄광 등에서 노무자로 일하다가 전쟁 후 극히 소수만 살아 돌아오고 나머지는 거의 피살되거나 사망하였다.

몇 달 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몇 분이 우리 집에 찾아 오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40년 전 나의 노동운동 경험과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직 내가 보관하고 있던 몇 점의 그 시절 생활용품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나는 학예사들에게 내가 반도상사 노동조합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그때 우리들은’이란 책을 한권 주었다. 학예사들은 책을 살펴보다가 책 앞부분에 나오는 내 개인 이야기 중에 아버지의 ‘대동아전쟁실기집(大東亞戰爭實記集)’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서는 그 기록은

일제 강제동원 되어 끌려갔던 당사자가 직접 쓴 내용이라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 나는 내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아버지의 징용일기를 다시 꺼내 읽어 보았다. 아버지의 징용일기는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있는 옛날 구어체이고 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연서(連書)이기에 지금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 징용일기를 나는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거의 이해하게 되었고, 읽으면서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겪으셨던 참혹한 고생을 상상하고는 다시 한 번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그래서 나는 이 징용일기를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현대말로 해석하면서 필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필사를 해서 한글워드로 쳐놓고 보니 한결 이해하기 쉬워졌다. 그러나 가능하면 아버지가 쓰셨던 그때 심정과 말투와 감정을 살리려다보니 현대 문법과 맞춤법대로는 고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해방 후 귀국하신 후에도 강제동원의 후유증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다 내가 11살 때 끝내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강제동원으로 끌려가신 이야기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해 주셨던 전쟁터에서 살아 나오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수차례 들었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만 나시면 아버지의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을 읽으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할 것 같다. 당시 꽃다운 새댁이었던 어머니는 강제동

원으로 끌려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그리고 해방 후 오매불망 기다리던 낭군이 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을 어땠을까? 그리고 오자마자 병석에서 누워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낭군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나도 가슴이 미어진다.

어머니의 이야기 내용¹⁾

우리 아버지가 강제동원 되어 끌려가실 때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쯤이었고 아버지 나이 20대 중반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고향이었던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에서 세 남매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 날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갑자기 동네 청년들과 함께 일본 농민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셨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매일 매일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일기처럼 적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써내려간 아버지의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 속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간 조선 청년들의 억울한 고생 이야기, 전쟁터의 처참했던 상황, 왜놈들과 왜병들의 천인공로 할 만행 등이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자식들과 형제들이 왜 끌려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자식과 형제들을 잃어버린 동네사람들은 끌려간 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끌려간 날을 기일로 정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도 매년 아버지가 끌려간 날에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서도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는 혹시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위해 매

1) 어머니의 회상 가운데 아버지가 강제동원되었다고 기억한 '1942년쯤'은 '1944년'으로, '유엔군 부대'는 '미군부대'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일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버지가 돌아온 날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의 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병들은 미군의 히로시마 원 폭투하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였을 당시까지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조선 청년들을 땅굴 속에 가두어 놓고 여러 날 굶기다가 막판에는 모두 총으로 쏘 죽이고 도망쳤다고 한다. 그 비참한 총살 현장에서 아버지는 다행히 총알을 빗맞고 기절하여 있었는데 의식이 돌아와 눈을 떠보니 굴속에는 조선청년들의 시체가 가득하였다고 한다. 바깥이 조용해져 밤에 아버지는 굴속을 빠져 나와 무조건 산으로 도망쳤다. 그 후 아버지는 산에서 몇 달간을 나무뿌리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짐승처럼 야생으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엔군이 산속 수색을 하다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 할 수 없어 총을 겨누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아버지는 무조건 손을 들고 걸어 나왔고, 그 수색 병사가 아버지를 데리고 유엔군 부대에 돌아가 목욕도 시키고 수염도 깎아주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야 아버지는 사람 모습으로 돌아 왔다. 아버지는 유엔군 부대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마침내 고국으로 오는 배를 탈 수 있었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 오셨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니 너무나 좋아서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를 잡아 온 동네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는 유엔군 부대에서 몇 달을 편하게 지내시다 오셔서 얼굴은 조금은 좋아진 상태였다. 아버지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오자마자 슬하에 7살, 3살 난 두 남매를 홍역으로 모두 잃고 말았다. 강제동원 중에도 동료들에게 고향에서 자라고 있을 두 남매 자랑을 하면서 모진 고생을 이겨냈는데 막상 돌아와서 두 남매를 잃어버린 후 아버지는 거의 실신 상태였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직 젊으니 아이 셋을 더

날졌다고 위로하셨다. 그 후 약속대로 어머니는 정말 아들 한명 딸 둘을 더 낳으셨다. 나는 그 때 두 번째로 태어난 딸이고 우리 삼 남매는 건강하게 자랐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신 후에도 전쟁터에서 너무 굶주리고 고생을 한 후 유증으로 늘 건강이 안 좋으셨다. 어린 시절 나의 기억에는 아버지가 언제나 편찮으셨고, 배를 웅크리고 누워계시는 모습만 남아있다. 그러던 아버지는 45세가 되던 해에 결국 위장병으로 돌아가셨다. 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내 아래 여동생은 1학년이었고 오빠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병석에 누워 계셨기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아버지는 그 참담했던 징용기간 중에도 후줄근한 종이 두루마리에다 자신이 매일 매일 겪고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갔다. 그 내용에는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같이 끌려간 조선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그리고 돌아 오셔서 그 낡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우리 작은 아버지의 붓글씨로 한지에다가 필사를 하여 조그만 책으로 엮어 만드셨다. 그 책자가 바로 아버지의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이다.

나는 아버지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일기를 써 가지고 나오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 돌아 오셔서 우리 삼남매를 낳아 주시고 키워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아버지가 그 혹독하고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나시고 기적같이 살아 돌아오실 수 있었던 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겠지만 또 하나의 동기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당한 조선 청년들이 일제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혹사당했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를 만천하에 알려야겠다는 아버지의 신념이었다고 믿는다.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오빠마저 돌아가신 후이지만 나라도 아버지의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을 발간하여 일제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때마침 금년은 3.1운동 100 주년기념 해다.

내가 철이 없어 이제야 책상 한편에 꽂아 두었던 아버지의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을 꺼내 다시 정리하게 되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마냥 죄송스럽다. 끝으로 아버지의 실기집을 필사하여 소책자로 엮어주신 작은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필사본을 다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2019년 12월 13일

유족 장헌자

『태평양전쟁 실기집(太平洋戰爭 實記集)』을 감수하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발간하는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은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이 일본군 소속의 군부(軍夫, 軍屬)으로서 겪었던 경험을 손수 작성한 기록으로서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 활용가치를 갖고 있는 매우 독보적인 1차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故장윤만(1917-1963)은 1944년 6월 10일에 징발되어 7월 12일 일본군 경성사단사령부에 소속되었고, 이어 일본 오키나와섬 서쪽에 위치한 ‘아카시마(阿嘉島)’에 주재했던 특설수상근무부대 제103중대 구(球)제8886부대의 군부로 배속되었습니다. 전쟁말기 아카도(阿嘉島, 일본 식 발음 아카시마) 북쪽으로 이동한故장윤만은 자미미도(座間味島, 일본 식 발음 자마미지마)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기 직전까지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수많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1945년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미군과 일본군 간의 ‘오키나와전투’(1945년 4월 1일~6월 23일) 말기에 자마미섬에서 미군에 의해서 1945년 6월 8일에 체포되어 오키나와섬에 위치한 제1포로수용소로 압송된(1945년 9월 20일)

故장윤만은 이후 약 5개월 후인 1946년 2월 18일자로 미군 당국의 결정으로 국내로 송환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9개월만인 1946년 11월 20일에 거주지(경상북도 상주 공성면 우하리)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군속으로 징발되는 1944년 6월 10일 이후 전쟁 막바지 미군의 포로가 되기 직전까지에 이동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휴대하고 있던 두루마기에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가 귀환 후 동생인 장재달에게 정서케 하여 1948년 2월 4일자로 『대동아전쟁실기집(大東亞戰爭實記集)』이라는 제호의 체험기를 남겼으며, 해당 수기집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출판 사업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본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은 다음과 같은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강제동원피해자 故장윤만이 거주지인 공성면의 면사무소에 집결한 이후 상주군-대구-부산-일본항(불명)을 거쳐 군속으로 복무했던 아카도(阿嘉島)와 마지막으로 자마시섬에서 미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기 직전까지의 전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둘째, 징발과정에서 거주지로부터 강제노역의 현지로 수송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에서, 소요기간, 목격하고 경험한 한인, 일본인 말단행정 관리들과 군인들의 말과 행위, 노예선을 방불케하는 수송선에 의한 이송과정, 군속으로 동원되어 복무지인 아카도에서의 비인간적인 강제노역 등 강제동원피해의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의 역사적 가치 또한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본인 관리들과 일본군이 피해자들에게 자행했던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와 잔혹한 만행과 학살행위 등과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기아와 질병,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학대와 살육 과정 등 일제강제동원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넷째,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점령에 앞서 전개된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과 상륙후 전투활동, 이에 대한 일본군의 처절하고 절박한 대응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자료는 전선 현장을 목격했던 인물의 기록으로서 이태평양전쟁의 연구의 좋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자살특공선(배)의 준비와 자살특공계획, 한국인 군속들의 투항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감금, 만행, 학대, 살육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식민지 조선의 한 평범한 농민이 겪은 바 일본식민통치의 실상을 절절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자료는 문헌기록들을 많이 남긴 지식인이나 엘리트의 시각이 아닌 평민 또는 민중의 인식이나 입장을 알 수 있는 독특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에 수록된 〈만화사우곡〉은 강제동원피해자인 저자가 함께 갔다가 죽은 동료에게 쓴 글의 형식을 빌어 떠나 온 고국산천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점에서 특별한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강제동원 피해자가 남긴 생생한 자료로서 국민들에게 전시와

출간을 통해서 일제 식민통치와 강제동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그림 등 문화 예술의 소재로서의 잠재적인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원본 사료인 『대동아전쟁실기집(大東亞戰爭實記集)』을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으로 출간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어휘나 단어, 내용 등은 풀어썼습니다. 그러나 원문 자체를 살리기 위하여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일부 1940년대 당시의 문체와 경상도 방언 등은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조금만 유의하여 읽으신다면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강제동원 피해자 수기집 발간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되어 고초를 겪으신 강제동원 피해자의 삶이 재조명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반 병 린

목차

발간사	04
-----------	----

윤희인의 말

『태평양전쟁 실기집(太平洋戰爭 實記集)』을 옮기며·····	06
----------------------------------	----

김수자의 말

『태평양전쟁 실기집(太平洋戰爭 實記集)』을 감수하며·····	12
-----------------------------------	----

故장윤만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참고설명	18
------------------------------	----

외정시대 징용거귀 고생기 倭政時代 徵用去歸 苦生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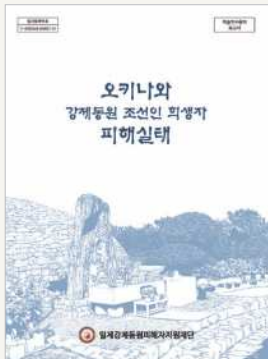
태평양전쟁 실기집 太平洋戰爭 實記集 / 29

우리나라 조선 청년 부모 슬하를 떠날 적에	31
연락선은 수 시간에 일본 땅에 들어서서	39
부산서 떠난 지 13일 만에 섬에 당도하다	42
저 공중에 뜬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가 분명하다	46

섬 이름을 물어보니 ‘아끼도(아카도; 阿嘉島)’라 하옵니다	52
폭탄과 총알이 5, 6월 소낙비 오듯 하는데	55
총알이 비 오듯 하는데	58
밥이라도 먹었으면 여한이라도 없지만은	61
유혈이 낭자하고 정신이 아득하여	62
너희들은 오늘 총으로 죽일 것이니	66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라	69
만화사우곡	72

부록 / 77

수기집 원문	79
故장윤만 강제동원 명부, 사료류	102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故장윤만님의 강제동원지 현장과 직결된 연구 자료를 덧붙입니다.

본 자료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2018년 일제 강제동원 진상조사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오키나와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피해실태』(책임연구원: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로, 오키나와 전투 및故장윤만님 강제동원지 추정 지역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섬’을 뜻하는 ‘도(島)’는 일본 발음으로 ‘시마’ 또는 ‘지마’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예] 아카도(阿嘉島) = 아카섬 = 아카시마, 자마미도(座間味島) = 자마미섬 = 자마미지마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과 오키나와忠勝 전투는...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개된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이오지마(硫黃島)와 더불어, 일본 본토에 속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이판 전투와 마찬가지로 전투원 외에 지역 주민들까지 전투에 끌어 들이고 마지막에는 일본측이 ‘옥쇄(玉碎)’라 미화하는 ‘자살과 전멸’이 유도된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이다. 따라서 동원된 조선인의 피해와 희생은 물론 규모와 내용면에서 볼 때 일제의 잔혹성과 인권 유린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오키나와 현지 주민에 대한 일제와 군인의 기만과 학대, 가족 간 살해, 자폭 강요, 자결 강요 등의 만행은 오늘날까지 일본



〈그림 1〉 오키나와 개요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 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오키나와는 본섬과 그 주변 섬인 미야코제도, 야에야마 제도, 다이토제도, 게라마제도 등 넓은 해역을 아우르고 있다.

일제는 전쟁 말기 태평양 도서 지역으로부터 퇴각하는 부대에 배치되었던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로 동원했던 조선인, 그리고 한반도에서 「軍屬·準軍屬」, 「軍夫」, 「일본군 위안부」 등 다이토제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오키나와 지역에 동원하여 배치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특히 게라마(慶良間)제도의 경우에는 수 천여 명의 조선인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진다. 이들은 방어진지와 방공호 구축, 굴파기, 탄약·식량·어뢰정·폭뢰 등의 운반과 설치는 물론이고, 연합군의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목숨을 건 작업을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일제는 조선인들이 「식량을 훔쳤다」,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본보기로 삼기 위해 이들을 무참히 공개적으로 학살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오키나와 지역에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약 '1만 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정확한 동원 규모와 희생자 수에 관해서는 197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의 민간단체 및 연구자, 오키나와 지자체 등에 의한 부분적인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¹⁾, 한국 또는 일본 정부의 전면적인 공식 조사는 과제로 남아 있다.

오키나와를 구성하는 주변 섬 게라마제도(慶良間列島)는...

게라마제도(慶良間列島)에는 경상북도 대구 일대에서 동원된 조선인 약 '6,000명'이 특설수상근무대에 배치되었다. 각 중대에는 약 '1500'명이 배속되었다.

자마미지마(座間味島)에는 특설수상근무대 제103중대원이 배치되었는데 조선인 군부는 특공정을 위한 굴 파기, 진지구축, 탄약과 식량 운반에 투입되었다. 미군 상륙 후 조선인들은 부대에서 방출되자 식량을 조달하고자 바닷가로 이동하던 중 사살되었다.

아카시마(阿嘉島)·게루마지마(慶留間島)에는 제103중대 중 일부 소대가 배치되었다. 이곳의 조선인들은 부산이나 오사카에서 동원된 자들로서 이들

1) 대표적으로 1972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가 제2차세계대전시오키나와조선인강제연행학살진상조사단(第二次大戰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을 결성하여, 그해 8월부터 9월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오키나와 지역 조선인 학대, 학살 실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단은 결과물로서 『第二次大戰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報告書』를 발간하였다. 이후 일본인 연구자의 조사보고서와 연구서가 다수 발간되었다. 국내에서는 일찍이 오키나와 게라마제도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권병하, 『게라마열도』 천마문고 3, 영남대출판부, 1982년)가 발간된 바 있고,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학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문 등이 약간 있다.



〈그림 2〉 게라마 지역의 전투 개요

은 야영을 하거나 임시주택에 들게 하였다. 이들은 일본병사는 물론이고 현지 오키나와인 방위대원보다 더 적은 1일 반휴에 불과한 식량을 지급받았다. 1945년 3월 약 20명가량의 조선인이 탈출한 뒤로 일본군은 조선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참호를 파게 하고, 그 안에 20~30명씩 들어가도록 하여 사실상 감금하였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시범케이스로 삼아 사살하였다.

게라마 지역의 주요 섬은 자마미지마(座間味島), 아카시마(阿嘉島), 게루마지마(慶留間島), 도카시키키지마(波嘉敷島)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0〉 참조). 이 곳은 오키나와 본섬의 서쪽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섬을 수비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본섬을 공략하기 위해 미군이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요충지이다. 따라서 이곳의 해상정진기지 등에는 조선인 군속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었다.



〈그림 3〉 게라마의 자마미자마(座間味島)에 상륙하는 미군
(HyperWar: US Army in WWII: Okinawa: The Last Battle에서)

특설수상근무 제101중대, 제102중대, 제103중대, 제104중대의 4개 중대 인원 중 약 절반 정도가 게라마에 배치되었다²⁾.

게라마에 집중 배치한 이유는 1944년 9월 오키나와 수비군인 제32군은 미군의 주 상륙 지점을 오키나와 본섬 남부의 서해안으로 예상했다. 이에 일본군은 상륙하는 미 상륙선단을 배후에서 기습한다는 목표 아래 해상정진전대(海上挺進戰隊)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300척의 자살특공정(自殺特攻艇)을 게라마의 해안가에 집중 배치하였다.(해상정진대 제1, 2, 3전대 및 해상정진기지 제1, 2, 3대) 따라서 이들 특공정을 은닉할 엄폐호와 땅굴 등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게라마에 수많은 조선인 군부가 투입된 것이다.

2) 제32군 고급참모 작전주임 야하라 히로미치(八原博道)의 증언. 보고서에는 야하라가 특설 수상근무대 4개 중대 인원을 6천명으로 보았고 이 중 절반인 약 3000명이 게라마에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이후 검증과정에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중대 총 인원은 3,000명을 넘지 않는다. 第二次大戰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 「第二次大戰時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団調査報告書」, 1972.(이하에서는 「調査報告書」(1972)로 표기한다.)

故장운만님이 미군 포로로 연행된 자마미지마(座間味島)는...

1945년 2월 중순 오키나와 본섬에서 특설수상근무 제103중대 제2소대, 제3소대(1분대 결) 약 300명이 입도했다.

조선인 군부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특공정 엄폐호 파기, 지지대용 나무 벌목, 진지 구축, 탄약창고 건설, 탄약과 식량 운반 및 하역을 강제당했다.

식사는 반합 한 개 분량의 식량을 하루동안 3명이 나누어 먹어야 했다.

산에서 벌목한 나무를 1시간에 걸쳐 바닷가 엄폐호까지 날라야 했다. 엄폐호 파기 작업 중 다이너마이트 사고와 낙반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³⁾.

미군이 상륙하자 일본군은 조선인들을 쫓아냈다. 식량도 없이 갈 곳도 없이 방황하던 조선인들은 바닷가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미군에 사살당했다⁴⁾.

일본군이 직접 조선인군부를 칼로 학살하기도 했다. 당시 방위대의 한 젊은 이가 일본군 한 명이 조선인 한 명을 칼로 베어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밖에 일본군이 밤중에 조선인 군부를 죽여서 땅에 묻었다는 소문도 있었다⁵⁾.

전쟁이 끝나고 5~6년 지났을 무렵 ‘자마미(座間味)초등학교’공사 현장에서 백골 2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전쟁 중 조선인 군부들이 있었던 곳인데 미군의 폭격을 받았다. 또한 미군 상륙 후에는 미군의 시체매장지였는데 조선인 군부가 동원되었다.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군 시신은 일일이 수습해 돌아갔기 때문에 발견된 백골은 미군의 유해일 리 없다⁶⁾.

3) 宮城初枝 등 현지 주민의 증언. 「調査報告書」(1972), 23쪽.

4) 高良, 島袋의 증언. 「調査報告書」(1972), 23쪽.

5) 「調査報告書」(1972), 23쪽.

6) 宮里(교사)의 증언. 「調査報告書」(1972), 24쪽.

故장운만님의 강제동원지로 추정되는

‘아끼도(아카섬, 阿嘉島; 일본어 발음 아카시마)’와

인근 게루마섬(慶留間島, 게루마지마)은...

특설수상근무 제103중대 2소대, 3소대 약 350명이 이곳에 집중 배치되었다. 그밖에 정비중대에도 부산과 오사카에서 동원된 조선인들이 상당 수 배치되어 있었다.

1945년 3월 26일 조선인 군부 20명 정도가 탈출했다. 이 중에는 일본군 장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부러 미군에 포로가 되어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군은 남은 조선인 군부들을 굴에 감금하고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끝내 잔인하게 학살했다.

도주 사건 직후 일본군은 조선인 군부들에게 본부 아래에서부터 나카가와다 이(中川台)의 중간 지점에 깊이 2미터, 길이 5미터 정도의 구덩이 2개를 파게 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대피호라면서 들어가라고 명령한 다음, ‘이제 쓸모가 없다’, ‘밥버려지’, ‘이적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독설을 퍼부었다. 구덩이에는 각각 20~30명씩 약 50명이 있었다. 그리고는 하루에 통조림 한 개 분량의 죽만 주었다. 구덩이는 방위대 대원이 착검을 한 채 보초를 서면서 조선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하루에 두 차례 용변을 볼 때만 사다리를 내려 한 사람씩 올라오게 했다⁷⁾.

4월이 되자 조선인 7명이 산으로 도망쳤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남은 조선인 군부들 약 30~40명은 좁은 동굴 속에 갇혔다. 이 가운데 적어도 12명 이상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⁸⁾.

7) 『調査報告書』(1972), 27쪽.

8) 한승동, ‘르포, 오키나와의 비극, 그리고 조선인 성노예’ 〈한겨레〉, 2015.8.15

도주했다는 이유로 학살

이런 가운데 하루는 22세의 조선인 군부가 도망쳤다. 방위대원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도중에 일본군에게 붙잡혔다. 일본군에게 끌려 간 다음 노다(野田) 대장이 목검으로 때려서 초주검이 되었다. 다음 날 바닷가(阿護ノ浜)에서 처형했다⁹⁾. 그는 ‘앞으로 어떠한 악전고투가 있더라도 군인군속으로서 규율을 어지럽히는 자는 단호하게 처단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¹⁰⁾.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아카시마(阿嘉島)에서 도망에 실패한 조선인 12명을 총살한 사례도 있다. 총살 장면을 목격한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도망에 실패한 12명은 총살되기 직전에 쌀밥 한 공기씩을 받아들자 그동안 굶주렸던 탓인지 죽기 전에 배불리 먹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정신없이 밥을 퍼먹고는 자신의 키 길 이만كم의 구덩이를 파야 했다. 그리고 구덩이 앞에 서면 일본군이 총을 쏘아 자기가 판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 일본군이 흙을 부어 덮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경우 덮은 흙이 움직이면 일본도로 몇 차례나 찢어서 죽였다고 한다¹¹⁾.

자살특공정 운반 중 전사

자마미시마(座間味島)와 아카시마(阿嘉島)에 배치된 조선인 군부들은 3월 24일부터 자살특공보트인 신요(振洋)호 약 300척을 바닷 속에 띄우거나 엄폐호로 다시 수납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야심한 시각에 엄폐호에 숨겨 둔 신요호를 조선인들이 밀고 당겨서 바닷물이 사람 어깨와 목 높이까지 차오르는 거리까지 운반한 다음 특공대원이 조종석에 앉힌 다음 미군 함정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9) 垣花의 증언, 『調査報告書』(1972), 27-28쪽.

10) 『調査報告書』(1972), 29쪽.

11) 沖縄県教育委員会 編, 『沖縄県史 第7巻(各論編 6移民)』. 沖縄県教育委員会. 1974.

물때와 작전 상황에 따라 출격했다가 다시 철수해서 엄폐호까지 신요호를 다시 끌고 오기를 반복했다.

노다(野田) 대장이 조선인 군부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3월 26일에서 27일 사이 자살특공보트 운반을 위해 조선인 군부 100여 명이 동원되었다. 밤중에 특공보트를 엄폐호에서 꺼내 바다에 띄워 미군 함대에 충돌시켜 자폭시키는 작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조명탄에 발각되거나 공격을 받아 수많은 조선인들이 사망했다¹²⁾.

또한 새벽 무렵 신요호를 다시 엄폐호에 격납하는 과정에서 미군 함재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자마미지마(座間味島)에서 25일 아침 무렵 미군의 함재기 공습에 의해 자살폭탄을 실은 신요호가 폭발하는 바람에 작업 중이던 조선인 군부 5~6명이 피를 토하며 수몰되었다¹³⁾.

자살, 자결 강요

일부 일본군 장교는 전투 중 조선인들이 자살했다고 회고했는데, 이는 사실상 자살을 강요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몬 것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사와(フサワ) 중위는 미군이 상륙하자 조선인 군부 10~20명이 ‘자살’했다고 증언했다¹⁴⁾. 그러나 강제로 끌려 와 온갖 멸시와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버텨 온 조선인 군부들이 미군을 보고 자살했다는 명백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12) 垣花, 照喜의 증언. 『調査報告書』(1972), 28쪽.

13) 권병탁, 『계라마열도』 천마문고 3, 영남대출판부, 1982.

14) 『調査報告書』(1972), 28쪽.

매우 낮다¹⁵⁾. 이는 자신들의 최후 자살공격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참시키려 했거나 조선인들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죽게 한 경우, 또는 직접 학살한 것을 은폐하려는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는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 군부 몇 명에게 폭탄과 수류탄을 건네주고 안전장치를 빼는 방법, 터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미군이 접근하거나 생명이 위급할 때 터뜨리라고 지시했다¹⁶⁾. 심지어 어떤 일본군 장교는 조선인들에게 수류탄 한 개와 건빵 한 봉지를 건네주고, 아까지마 마을 쪽으로 내려가서 미군의 진지에 접근해서 수류탄을 진지 안으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조선인들은 일본군 장교를 따라 하나둘씩 도망한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 일본군과 함께 전사한 경우도 많았다¹⁷⁾.

심지어는 일본군이 자폭하는 순간 주변에 있다가 이유 없이 사망한 조선인도 부지기수였다. 이곳에서 살아 돌아 온 최천암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미야다 분대원은 도피하여 (조선인) 20여 명은 작은 언덕에 모였다. 그때 미야다는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들고 집단 자결을 강요하였다. 그 때는 이미 의논하거나 만류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 … 수류탄을 높이 치켜들고 “텐노헤이가 반자이(천황폐하 만세)” 라는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수류탄이 폭발하였다. 미야다는 순간 가루가 되었고, 평소부터 미야다와 가깝게 지내던 3~4명이 죽고 최천암은 이마에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¹⁸⁾

15) 오키나와 주민 照喜는 미군이 상륙하는 3월 26일 조선인 군부들이 많이 죽은 것 같다. 자살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調査報告書』(1972), 28쪽.

16) 권병탁(1982), 168쪽.

17) 권병탁(1982), 173-174쪽.

18) 권병탁(1982), 174쪽.

탈주 또는 식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13명 처형

처형 지휘자는 통신대 암호반의 오노다 조장(小野田 曹長)이었다. 이 자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어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26년 식 권총’의 위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조선인 군부들을 ‘본보기’로 죽였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총살하기 전에 조선인 군부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하고 그 앞에 세운 다음 총살하고 나서 구덩이에 흙을 덮었다¹⁹⁾.

기타 게라마 지역 내 학살 사건

게라마제도의 일본군은 미군상륙 후 투항하지 않고 산에 숨어 있었으나 탈출·투항을 저지하고 죽음을 동반자로 삼으려는 일본군의 총구는 끊임없이 군노무자들을 향해 있었다.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던 노무자들의 눈앞에서 7명의 노무자를 학살했다²⁰⁾.

* 출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8.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오키나와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피해실태(책임연구원: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 pp. 13-15, 81-82, 91-97.

* 발췌·정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김희근

19) 垣花의 증언. 그는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길러 조선인들이 묻힌 곳을 매일 지나다녔는데, 이런 무덤이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 둘씩 늘어갔다고 했다. 『調査報告書』(1972), 28쪽.

20) 海野福寿·権丙卓 『恨(ハニ)―朝鮮人軍夫の沖繩戦』, 河出書房新社, 1987. ; 아라카키 야스코, 「일본 오키나와전쟁과 주민학살의 교훈, 전쟁체험기록편집의 현장으로부터」, 제주 4.3연구소, 「4·3과 역사」, Vol.5, 2005년., 55쪽.

왜정시대 징용거귀 고생기

倭政時代 徵用去歸 苦生記

태평양전쟁 실기집

太平洋戰爭 實記集

우리나라 조선 청년 부모 슬하를 떠날 적에

조선반도 청년들아 글 한귀 지어보세.
우리나라 조선 여러 부모 슬하를 떠날 적에
독한 일본 종자 이삼일도 여유 없이
죄진 사람 잡아오듯 속여가면 하는 말이
장부에 이름 없이 청년들을
오늘 즉시 면에 가서 훈련 받아라 하며
면으로 데리고 가서
시와노모 면장 하는 말이 자네들 들어보라.
자네들 가는 데는 멀지 않은 대구로 가니
기간은 이 개월 정도 되니
조금도 염려 말고 다녀오라 하옵디다.

연설을 들은 후에 시간을 보니
벌써 오후 한시가 되어 떠다 밀 듯이 갈 길을 재촉한다.

불쌍한 우리 청년 가련하기 짝이 없다.
면 직원 세 명을 따라 상주군에 들어서서
본 군대로 들어가니

각 면에서 모여든다.
그럭저럭 시간이 가서 오후 4시가 되었더라.
우리 청년 모아 놓고 군수영감 하는 말이
자네들 들어보게.
이번 가는 데는 멀지않은 대구로 가니
조금도 염려 말고 다녀오게.
그리고 기한까지는 알 수가 없네.
우리 청년들 그 말 들은 후에 일시에 탄식한다.

용서 없는 시계는 벌써 여섯시는 되였더라.
먼 산에는 해가 지고 월출동방(月出東方)에 달이 뜨니
처소를 정하는데 어느 여관 정하던고 관동 여관 정하더라.
여관에 들어가서 이삼십 분 있다 보니 저녁밥이 들어온다.
밥상을 보니 서글프기 짝이 없다.

밥이라고 주는 것이 세 손가락 되락마락 하는데
벌레 먹은 나물 숨만 죽여서 섞어주니
종일 굶은 우리 청년들 굶은 듯이 먹고 나니
각각 처소로 들어가서 거동을 보니
군 직원, 면 직원들이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어 요동할 수 전혀 없다.

불쌍한 우리 조선 청년들아 들어보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자유가 없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다.
그럭저럭 밤이 되어 그날 밤을 지날 적에
잠은 오지 않고 홀로 앉아 생각하니

부모 음성, 처자 음성들이 지나간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

계명종(鷄鳴鐘)이 우는구나.

하도 답답하던 말이

‘날아날아 새지 마라 날만 새면 나는 간다’하다 보니

동창에 해가 돌아 문창에 가루올 제 에고 답답 어이할꼬.

따뜻한 우리 고향 부모처자 여기 두고

나만 홀로 간단 말인가.

원수로다 원수로다 탄식하다 보니 문 밖에서 부르도다.

누가 와서 부르든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침 하늘은 맑고 때는 하절(夏節)이요

오늘은 음력 5월 21일이요.

상주역을 들어갈 때 골목골목에서 사람들 손을 잡고

울음 울고 얼굴보고 울음 울 때

일본 종자 아니고야 눈물 안 흘리는 이 없더라.

가장(家長) 보낸 처자들은 어린자식 등에 업고

백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역전까지 따라와서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며불며 하는 말이

‘임아 임아 낭군님아 님은 부모처자 생각하다 병이 날까 염려로다.

너무 생각 마옵시고 만수무강 하옵다가

고국을 와서 옛말하고 살아갑시다.’

하며 손잡을 적에 대장부는 일촌간장(一寸肝腸) 마디마디

녹는 것 같다.

유 다른 우리 정을 악수로 작별하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길이 안 보일 적에 원수놈의 기차 보소.
그만 연기 피워가며 우리 정을 떼러 온다.

기차에 몸을 싣고 창문을 열고 보니
서장, 부장, 군수, 모조리 나와서 기차소리 한 번 치니
‘만세’ 라고 부르는데 우리 청년 할 수 없이 부모처자를 영영 이곳에
두고 김천행을 타고 갈 때
빠르고 빠른 기차는 벌써 김천을 도착하였더라.

김천역에서 부산행을 기다릴 때
불쌍한 우리 청년 물을 먹자해도 한 사람이 데리고 가고
소변 대변을 보려 해도 감시놈이 데리고 가니
억울하다, 억울하다 조선청년 억울하다.

그럭저럭 시간되어 부산행이 들어온다.
부산 행을 갈아 타고 대구에 도착하니 오후 3~4시가 되어
우리 청년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 가나 보니
회당에 들어가서 점심밥을 돌리는데
그 점심을 먹은 후에 두 시간을 있다 보니 각군에서 모여 든다.

그날 밤을 지난 후에 군에 있던 일본놈이
신체검사를 맡아서 데리고 갈 때

어디로 데리고 가오?

연병장(練兵場)을 들어가서 사방을 살펴보니

누런 양복 입은 병정이 총 끝에 칼을 꽂고 서있는 양을 살펴보니

무섭기가 짝이 없다.

그럭저럭 시간되어 한 줄로 서게 하여

일본 놈 한 놈하고 조선 병정 하나하고 둘이서

신체검사 대강 대강 한 후에 열 시가량 되었는데

일본 병정 한 사람이 인도하여 데리고 간다.

어디로 데려가요?

사범학교로 들어가서 한 줄로 세워놓고

의복을 돌리는데 무슨 의복을 돌리든가 군복을 돌린다.

불쌍한 우리 청년 군복을 받은 후에

학교 교실로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말이

아하, 우리 동포들이 의복을 받고 보니 군속(軍屬)이 틀림없다.

일자무식(一字無識) 우리 동포 군속 될 줄 알았으랴.

피신이나 해볼 걸 한다.

독한 일본 종자 명령으로 불현듯이 잡아오니 피신인들 할 수 있나.

그럭저럭 의논하다보니 서산에 해가 지고

월출삼경(月出三更) 그날 밤에 잠은 오지 아니하고

홀로 앉아 생각하니 만 가지로 생각해도

우리 청년 가는 데는 틀림없이 일선일세.

가자 한들 죽음이고 도망치자고 생각해도
이 몸 하나 뛰고 나면
독한 놈의 일본 종자 고향에 있는 부모처자 그냥두지 아니 할 것이요.
도망가자 해도 그러하고 따라가자 해도 난처하고
아하, 우리 동포들아 어이하면 좋겠는가?
이 몸 하나 죽는 것은 슬프지 않으나
연만(連滿)하신 우리 부모 생각과 남다른 처자
홀로 백골을 피하자면 그 몰골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홀로 앉아 생각하니 기명(계명)이 우는 구나.
계명(鷄鳴)이 울린 후에 왜졸이 나와서 나팔을 부는구나.
나팔소리에 놀라 깨어 소변 대변 가려해도
왜졸놈 한 놈이 문 앞에 앉아
경례 안한다고 하면서 뺨도 치고 등도 치니
무식한 우리 청년 매맞는 것이 웬 일이냐.

그럭저럭 2~3일을 지난 후에 영창 열고 내다보니
근처에는 우리 동포 부모처자 어린자식 등에 업고 울며불며 찾아와서
먼눈으로 인사하며 백옥 같은 얼굴에서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니
아무리 대장부의 마음이라도 눈물 안 흘리는 이 없더라.

자식 된 마음에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부모처자 후려잡고 만 리라도 가고 싶으나
일본 종자가 지키고 있어 가지도 못하고

대장부의 일촌간장(一寸肝腸) 다 녹는다.

몹쓸 놈의 왜졸놈들 먼눈으로 불라하면
대 바지랑대¹⁾를 손에 들고 와서 이면을 때리고 들어오며
때리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처리하니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 조선동포 불쌍하다.
그럭저럭 2~3일을 지난 후에 의복 분배 시킨 후에
우리 청년 모여 놓고 짐 매는 법을 가르친다.
짐을 매여 등에 진 사람은 틀림없는 병정이라.

그럭저럭 수일을 지난 후에
하루는 오후 세시나 되었는데
낮에 일시에 짐을 지고 모여라 하는 말에
왜졸놈 이삼인이 나팔을 불며 사범학교 떠날 적에
각조마다 눈물ियो, 각 조마다 한숨이라.

우선 나서보니 인산인해(人山人海)인 듯한데
자식 보낸 부모들과 가장 보낸 처자들이
어린자식 등에 업고 역전까지 마중 나와 울음 우니
가는 길 대장부 처자 우는 형상보고 일촌간장(一寸肝腸) 다 타는 구나.

이내 간장 타는 데는 눈물과 한숨이 바람 되어
타는 간장(肝腸) 그칠 만도 하건만

1)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그럭저럭 정신없이 가다보니 역전에 당도하여
울며불며 역전까지 따라오는 부모처자를 역전에서 영영 작별하고
정처 없이 대합실로 들어간다.
대합실에 들어가서 부산행을 기다리는데
한 시간 동안 기다리니
검은 연기 피워가며 부산행이 들어온다고 독한 왜병이 말한다.
기차에 올라보니 봉창 없는 차 칸에다 틈 없이 짜여놓고
문조차 닫은 상태니
오뉴월 삼복더위에 공기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으니
내 몸이 답답하다.
어찌 갈꼬?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그럭저럭 대구역을 떠날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아니 한다.
무정한 기차는 수 시간 새에 온 듯 부산역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는데 어디를 정하든가?

공회당(公會堂)을 들어가서 자리를 살펴보니
비좁아서 앉을 틈도 없고 뜬눈으로 새울 적에
따뜻한 우리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고생고생으로 그날 밤을 지낸 후에
이튿날 짐을 메여 등에 지고 연락머리 도착하여
선창(船倉)까지를 살펴보니 천지사방 병정이요,
요동할 수 전혀 없다.



연락선은 수 시간에 일본 땅에 들어서서

연락선에 몸을 싣고 만경창파(萬頃蒼波) 떠날 적에
영창(影窓) 열고 내다보니 대장부의 마음인들 고국생각 절로 난다.
우리 몸을 싣고 가는 연락선은 어디를 가나
빠르게 달려온 연락선은 수 시간에 일본 땅에 들어서서
연락머리 대는 데가 선창이 분명하더라.
연락선(連絡船)²⁾을 내려서 처소를 찾아든다.
어느 여관 정하든가 2층에 다 들어, 5~6일을 유한 후에

불쌍한 우리 조선청년 짐을 매여 등에 지고
문쪽으로 건너가서 선창을 살펴보고
태산 같은 큰 배에 올라가서
이층 실에 들어가서 40~50명이 앉으니
잉어 같은 우리 청년 답답하기가 말할 수 없다.
하도 답답해서 바람조차 쐬 수 없다고 하니,
독한 놈의 왜병이 때리는 매를 참지 못하여 다시 들어간다.

2)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협이나 해안, 큰 호수 따위의 수로를 횡단하면서 양쪽 육상 교통을 이어 주기 위하여 다니는 배

들어앉아 생각하니 하도 목이 말라 못 견디고
다시 나와 하는 말이 반장나리 들어보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물 한 모금 먹으로 가게 해 달라고 사정사정 그리해도
독한 종자 하는 말이 ‘죽어도 좋다’ 하면서 ‘나가면 뒤진다’고
말할 적에 돌아서서 생각하니 눈물 밖에 안 나더라.

그 말 들은 우리 청년들 모여 앉아 하는 말이
아하! 우리 조선 동포들아 이리하여 살겠는가.
하도 답답하여서 바람 조금 쐬려 해도 매를 친다.
목이 말라 물을 먹자 해도 죽어도 좋다고 하니
이리하여 살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살기는 다 틀렸다.

만경창파(萬頃蒼波)에 뜬 배는 쉬지 않고 빨리 달리는데
이와 같이 달려가도 일 이 개월은 걸린다.
이 불쌍한 우리 청년 천명(天命)이 아니고야 살아오기를 바라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살기는 틀렸다.

그럭저럭 가는데 미군 비행기가 내리려나
저렇게 날아가고 밤으로는 쉬며 갈 때
불쌍한 우리 청년
뜨거운 배안에서 삼사일을 가는 중에
왜줄놈을 속여 틈을 내서 밖에 나와 보니
태평양(太平洋)을 들어설 때
태평양을 바라보니
따뜻한 우리고향 생각뿐이로다.

눈물 쥐며 하는 말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아
남들 태어날 때 태어났건마는 우리 팔자가 왜 이런고,
때를 못 만나 이러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전혀 없네.

배는 뽕뽕 태평양을 들어서서 밤낮 주야로 떠나간다.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동포 똑같은데 들어 앉아
십삼일을 지난 후에 다시 나와 만경창파(萬頃蒼波) 바라본다.

바다를 바라보니 섬(島)이 하나 보이더라.
태평양을 떠난 우리 동포,
섬을 보고 하도 반가워서 박수를 칠 적에
그 섬 처음으로 보일 때 시간 내로 명령 내려 그 섬에 내릴 적에
몇 중대(中隊)가 내리는가?
1, 2, 3중대 내리고 4중대도 내리는데
남아 있는 중대는 정처 없이 떠나간다.

3, 4중대 우리 동포 육지에 내려서 살펴보니
이곳에 민가(民家)는 일본식이 아닌 곧은 지나(支那)식³⁾이 분명하구나.
한 청년이 하는 말이
지나사변(支那事變) 할 적에⁴⁾ 남양군도(南洋群島)⁵⁾, 싱가포르를
뺏을 적에 점령한 게 분명하다.

3) 지나(支那)는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식 가옥 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됨.

4) 일본에서 중일전쟁을 이르던 말

5) 본문에는 '나령군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일본이 점령한 남양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 '남양군도(南陽郡島)'는 1914년부터 1945년 8월 종전 시까지 일본의 통치를 받은 중서태평양 지역을 지칭함.

부산서 떠난 지 13일 만에 섬에 당도하다

부산서 떠난 지 13일 만에 섬(島)에 당도하다

이력저력 시간되어 오후 3시는 되었는데 숙소를 정하는 중이다.
우리 동포 선창가에 모여 앉아 하는 말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청년 왜졸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을
줄 누가 알았으리요. 답답하다.

우리 부모 나 이 고생 이러한 줄 모르지요. 이 고생이 웬 말이요.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 하고 마음에는 애탄(哀歎)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탄식한들 애통(哀慟)만 타네.
여러 청년 입에는 하는 말이 이뿐이더라
이와 같이 담론(談論)하는 사이에 두어 시간이 지났든가.

떠날 준비 하여라 하는 소리에 짐을 메여 등에 지고
왜졸놈 뒤를 따라 불쌍한 우리 청년 밤이 되도록 따라가니
무인지경 산 가운데 빈집 몇 채가 있어 들어가서
그 집안을 살펴보니 오고 가는 병정들이 쉬여가는 집이더라.
우리 동포 들어가서 집안을 살펴보니

누울 틈은 전혀 없어 앉아서 새우게 되었더라.

불쌍한 우리 청년 모여 앉아 하는 말이
육지에 내리면 편히 쉴 줄 알았더니
오나가나 우리 팔자 잠자리조차 이러하니
아하! 우리 동포들아 이리고 어찌 살겠는가?

고생고생 침침한 그날 밤을 새울 적에
따뜻한 우리고향 생각 절로난다.
그럭저럭 있다 보니 일출동방(日出東方) 해가 뜨니
왜졸놈들 벌써 나와 모여서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일하러 가자고 재촉하더라.

종일 굶은 우리 청년 왜졸놈들을 따라서 선창가에 도착해서
사방을 살펴보니 선창가라 하는 데는
군속(軍屬)의 짐이 와서 짐들을 태산같이 모아놓고
아침 굶은 우리 보고 그 짐을 운반하라 하니
불쌍한 우리 동포 청년 죽지 못하여 하울 적에
기운도 없고 배는 오죽 고프리오.

하늘은 노오랗게 보이고 눈은 캄캄하고 천지(天地)도 안 보이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 보니 때는 한나절이 되어
점심밥을 줄까 바랐더니 점심조차 주지 않고 그날 해를 넘기니
죽는 것과 다름없더라.

그럭저럭 해는 지고 숙소로 들어온다.
저녁밥이라고 주는 것이 밥을 둘러보니
80명이 먹을 밥이 40~50명이 먹어도 될까 말까 하다.
그 밥을 80~90명이 먹었으니
종일 굶은 우리 청년 밥은 먹은 지 만 지 하여 정신이 가물가물하다.

아이고, 배야 못살겠네. 배고파 못살겠네.
오호라 애탄이여 어찌해야 왜졸의 원수를 갚을까?
이내 몸이 할 일이다.

그럭저럭 사 오일이 지난 후에
하루는 이사를 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짐을 챙기라 하여 짐을 챙겨 지고
왜졸의 뒤를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시내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라.

그 학교에 간 후로는 밥도 좀 더 주고 배급도 주며
주야장창(밤낮으로) 일만하니, 불쌍한 우리 청년 그 물골이
오죽하리요.
불쌍한 우리 청년들이라 무정세월(無情歲月)은 여류(如流)하와
그럭저럭 수 개 월이 지났더라.

별안간 왜졸놈들이 또 이사인지 무엇인지 한다면
짐을 챙겨라 하고 불쌍한 우리 청년 짐을 메여 등에 지고
왜졸놈의 뒤를 따라서 이사한 집을 살펴보니

서글프기 짝이 없네.

마당이라 하는 것이 풀잎들은 우거지고
울도 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집수리를 하고 나니.
절반은 일을 보내고 절반은 대기하고
남은 청년은 설거지를 하다 보니
어디서 난데없는 총소리가 나는 듯하다.

불쌍한 우리 청년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사방을 살펴보니.
왜줄놈들이 설치면서 여봐라 군부들아
봐라 봐라 하지 말고 급히 굴속으로 들어가라 소리친다.
미군의 비행기가 사방으로 날아든다 하는 소리에
불쌍한 우리 동포 거동보소.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면서
이리저리 굴속으로 모여든다.

저 공중에 뜬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가 분명하다

모여 앉아 하는 말이,
아하! 우리 동포들이 큰일 났다, 큰일났어!
저 공중에 뜬 비행기는 어디 비행기냐? 미국 비행기가 분명하다!
이제는 틀림없이 다 죽겠다!

핏기 없이 있다가 미군 비행기가 폭탄을 던져
부수기를 시작 한다.
무식한 우리 동포 비행기는 설치는데 구경을 한다며
굴 밖에서 설치오니 왜졸놈들이 매를 들고 때린다.

때리고 있는 중에도
미군의 비행기는 5~6월 소낙비(소나기) 같이 같이 총을 쏜다.
불쌍한 우리 동포 총살을 피하면서 굴속에 들어앉아 시간을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되었더라.

왜졸놈들 먼저 나와 군부를 부르더라.
불쌍한 우리 동포 굴밖에 나서보니
온 천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이 폭격을 맞아 온전한 데가 없더라.

독한 왜졸놈의 거동 보소.
무식한 우리 청년들에게 삼 하나씩을 들려주고
불끄러 가자 하니 우리 청년 할 수 없이 따라가서
불을 끄고 돌아온다.

일몰(日沒)이 되어 저녁밥을 먹은 후에
고래장 속으로 들어가서⁶⁾(가매장 당하듯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밤을 새울 적에
잠은 오지 않고 따뜻한 우리 고향 생각 절로 나서
잠시라도 잊지 못할 우리 고향 돌아가면
부모형제 있건 만은
요 모양 이리 될 줄 나 몰랐네.

그럭저럭 그 밤을 새워 이튿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나니 아홉시는 되는데
우리 동포 한사람이 밀고 들어온다.

우리 있는 굴 앞에 갔다 온 이들이
얼굴을 본 이 불쌍한 우리 동포 다섯 사람 죽은 시신을 종일
두었다가 이튿날 나무 위에 시체 놓아 석유 한통 위에 뿌리고
동무가 보는 앞에 화장을 하고,
다섯 곱에 뼈를 주어 담아 가지고
국장실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6) '고래장하다'는 충청북도 방언으로 '가매장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조선사람 죽는 거 아무렇게나 뒤집어 놓고 하는 것을 눈뜨고
봤다고 한다.

그런 말을 듣고 본 우리 청년들은 앞이 캄캄하여 정신을 잃었더라.
이가 갈리고 마음을 썩이는 우리 청년 이 모양이 어인 일인가?
일본 종자 어찌하여 원수를 갚을까?
그럭저럭 있다 보니 삼 소대(小隊)에 군부(軍夫)들이
정신없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아아! 우리 군부들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우리 소대 군부들아 군부들의 삼분의 일은 안 보이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전혀 없다.

그럭저럭 한 사람 돌아오고 두 사람 돌아온다.
이삼일 지난 후에 한 줄로 세워 놓고 세어 보니
십 오명이 간 곳이 없다.
그날을 지난 후 이튿날 일어나서 일을 하자 하니
일본 병정들 따라서 불천지로 들어간다.

한시가량 있다가 예전에 있던 초등학교에 쌀 오백포 있는 것을
운반하자 하니,
불쌍한 우리 청년 안 가면 매를 때리니 매맞는 것 참지
못하여 하는 기라.
그럭저럭 12시가 지나니 점심을 가지고 와서 주먹밥을 돌리는데
불쌍한 우리 청년 점심 먹은 거라곤 반요기도 안 되더라.



일본 병정 안 볼 때 조심조심 쌀을 먹고
근근이 그 날은 지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살펴보니
그전에 먹던 절반도 되락마라 하더라.
우리 청년 밥을 보고 하는 말이
아하! 우리 동포들아 이 밥 먹고 어이 살꼬?
그럭저럭 이튿날이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 선창가로 일을 간다.
일을 가며 살펴보니 사람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누워있고,
말(馬)도 죽어 있고
그럭저럭 선창가에 도착해서 만경창파(萬頃蒼波) 둘러보니
선인(船人)들이 죽어서 여기 저기 떠 있더라.

불쌍한 우리 동포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탄 간수메(통조림)를 주어다가 밥 먹듯이 먹는다.
우리 동포 오죽이나 배가 고파 주워 먹는 걸 보면
일본놈이 그것조차 못 먹게 하옵디다.

그럭저럭 그날은 지난 후에
매일같이 미국 비행기가 떠나지 않고 공중에서 공습을 하니
민간인들도 피난해야 하고 우리 청년들도 날마다 피난을 간다.
우리 청년과 민간들은 한시라도 조용할 때가 없더라.
눈물 짓고 한숨 쉬며 하는 말이
원수로다 원수로다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 원수로다 하여
봐도 쓸데없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이리하고 살겠는가?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라
이렇게 한탄을 매일같이 하고,
생각에 생각을 하면서 수개월을 지난 후에
하루는 돈을 가지고 와서 두 달 월급이라 하면서
26원을 개개인에게 돌리더라.

매일 일 나가면 고구마와 과일을 사서 먹고 하니
불과 2개월이 가지 못하더라.
그것이라도 사서 먹다가 사먹을 돈이 없으니
배고픈 걸 견딜 수가 없더라.

이와같이 불쌍한 우리 청년 대구서 입은 군복을 지금까지 한 벌로
입었으니 헐고 더러워져 육안으로 볼 수조차 없다.
우리의 고생은 태산이로다. 한이 없더라.
이때가 어느 때인가 소화(昭和) 이십년(1945년) 2월이라.

따뜻한 우리고향에는 춘절(春節)이 와서
산천에 초목은 축이 트고
전선에는 보리 싹이 푸릇푸릇 성하는지 눈에 어린다.
따뜻한 우리고향 보고 싶소. 가고 싶소.
벌써 고향 떠난 지 1년이 가깝구나.

주야로 고향 갈까 바랐더니 무식한 우리 청년 하는 말이



이번에 함선 들어오면 그 짐을 다 풀면
우리 신고 간다는 걸 낙을 삼고
이삼일 지난 후에
크고 큰 함선 짐을 다 내리면
고향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야로 그 짐을 다 푼 후에 짐 매라 하옵디다.

무식한 우리 동포 고향 간다하며
짐을 매어 등에 지고
선창가에 나가서 배를 타려고 준비 할 때,
소대장이 짐을 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 가는 데는 이 섬(島)이 분명하다.
하는 소리에 천지가 막막하여 정신이 없더라.

섬 이름을 물어보니 ‘아끼도(아카도; 阿嘉島)’라 하옵니다

그럭저럭 시간되어 밤이 새도록 가고 나서
이튿날 도착하니,
그 섬 이름을 물어보니 ‘아끼도(아카도; 阿嘉島)⁷⁾라 하옵니다.

섬에 내려 숙소를 정하는데
그날 종일 기다리며 밤이 되니 가자하는데
그날은 정월 6일 날 밤에 비가 와서 물 천지가 되었더라.
넘어지고 얹어지고 숙사를 찾아든다.

한등 넘어 두등 넘어 무인지경(無人之境) 산골짜기에 숙소 하나 보이더라.
안에 들어가 불을 켜 살펴보니 서글프기 짝이 없다.
싸리로 문을 엮고 달고 품을 엮어 자리 깔고 돌아서니
그 서글픔을 고사하고 무섭기가 한정 없네.

그럭저럭 밤이 되어 누어서 쳐다보니

7) 故장유안님의 일제 강제동원 관계 기록 및 명부와 원본 사료『대동아전쟁 실기집(大東亞戰爭實記集)』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아끼도’는 일본 오키나와(忠勝) 자 마미섬(座間味島) 인근의 ‘아카도(阿嘉島, 일본식 발음 아카시마)’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됨.



하늘이 보이는데 소마구간(외양간)이 틀림없다.
그 밤을 근근이 새우고 이튿날이 되었는데
무슨 일을 시키는가 병정에게 물어보니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일은 안하고 배 꺼내는 일 뿐이다.
무식한 우리 청년 배를 꺼낸다 하니 무슨 배를 꺼내는가 했더니
조금 후에 있다가 연습하러 가잡니다.

병정에 뒤를 따라 배 있는 곳을 가니 산 밑에 굴을 파고
빈 배만 넣어놓고 병정이 하는 말이
이 배는 이곳에 두었다가 어느 때 쓰느냐 하면
아메리카 항공모함이 오면 이 배에다 폭탄 싣고
한 사람이 타고 가서 그 배를 폭발시킨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 알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삼일을 지난 후에
미군 비행기가 날마다 하늘에서 맴돌며 들어온다.
불쌍한 우리 청년 피하고 피해가면서 지낼 적에
배가 하도 고파서 나물도 뜯어먹고 송구(소나무 속껍질)도 꺾어먹고
나무열매도 따먹으면서 며칠을 지난 후에

하루는 미군 비행기 수십 대가 날라 와서
산천초목(山川草木)에 불을 질러놓으니
조그만 '아끼도'가 불천지가 되었더라.

이와같이 미국의 일본 공습이 있어 잠시라도 숨쉴 새도 없이
엎드려 있어야 했고
불쌍한 우리 청년 잠시만 비행기가 안보이면 불을 끄러 가자 하니

안 가겠다 하면 칼을 빼 칠라 하니 죽더라도 할 수밖에 없네.
억울하다 우리 청년 이 고생이 웬 말이나.
그럭저럭 해는 지고 산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니
섬 전체가 불이더라.
끄다 끄다 다 못 끄고 삼사일을 타니
초목이라 명색이 보이지 아니 하더라.

하루는 일어나서 일곱 시는 되었는데
불을 끄려고 나가니 비행기가 와서 불을 끄지 못하고
바위틈에 모여 앉아 피신을 하다 보니
어디서 난데없는 대포 소리가 천지를 울리더라.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아하! 우리 동포들이 틀림없다 틀림없어 살기는 다 틀렸다.
총소리 나는 것이 미군의 총소리다 할 적에
친구 하는 말이 여기서 있지 말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며 집으로 가자 하여
집으로(거처로) 와서 보니,
우리 동포 간데없고 굴을 찾았을 때
이곳에는 왜졸놈 병정 둘과 조선동포 4인이 들어앉아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있는 왜졸놈 하는 말이
폭탄을 한 개 주면서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미군이 오거든 던지고 너도 죽어라 하니
불쌍한 우리 동포 그 폭탄을 받아들고 눈물지며 하는 말이
‘아하! 우리 동포 친구들아,
이제는 다 죽었다!’

폭탄과 총알이 5, 6월 소낙비 오듯 하는데

바다를 내다보니 온 바다에 배들로 꽉 찼다.
공중에는 비행기요, 대포와 폭탄과 총알이
5, 6월 소낙비(소나기) 오듯 하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동포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면 천명(天命)이요
만무(萬無)로다, 만무로다.

그 동안에 미군 병정들 한 무리는 상륙하고
한 무리는 배 위에서 총을 쏘니
천명이라도 피할 수조차 없더라.

그 와중에도 총알을 운반하라 하니
기가 막힌 우리 청년 총알 메고 왜졸의 뒤를 따라 가니,
총에 맞아 죽는 사람, 폭발 터져 죽는 사람,
참으로 인간으로서 못 볼 것은 그 뿐이더라.

그럭저럭 오후 6시는 되었는데
태평양을 바라보니 배는 떠서 있고 밖은 보이지 않고
그때 우리 청년 배를 넣은 굴에 모여서 폭탄을 배에다 실어주고

너무도 배가 고파서 조금 앉아 쉬고자 하는 때에 미군이 온다.
조그만 ‘아끼도’를 틈 없이 올라서니
여기 있는 우리들은 꿈쩍 못하고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다.
종일 굴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4~5시간 있는데
미군의 거동 보소.
우리가 있는 굴 앞에다 배를 대고서 올라다니며 총을 쏘니
우리 동포 천명이 아니고야 살기를 바라리오.

종일토록 부수더니 우리가 있는 굴을 보고 총을 쏘니
우리 청년 하나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울며불며 하는 말이
아하! 우리 동포들아 울지 말고 정신 차려라.
오늘 죽으면 오늘밤에 고향 가서 부모형제 만날 터이니
그리 생각 깊이해라.

속히 죽자 하면서 있다 보니
어느 때가 되었는지 산에는 해가 지고 일몰이 되니
미군 병정이 절반은 내려가고 절반은 산에서 기관총을 겨눈 채
나뭇잎만 바스락 소리 나도 그곳에 총을 쏘서
굴에 앉은 우리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이 하는 말이
밤이 어두우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월 보름달은 밝은데,
우리 동포 하는 말이
여기서도 죽을 거요, 가자 해도 죽을 거요, 밖에 나가보자
근근이 굴속을 나와 병정이 앞을 서고
우리도 포대를 따라 기어서 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기어 가다보니
미군이 산에 있다가 우리가 기어가는 것 보고 총살을 갈기는데
본 정신은 전혀 없고 눈독 밑에 들어 누워
총소리가 멎은 후에 또 기어가기 시작 한다.
기어가면서 살펴보니 우리 조선 동포의 죽은 시체들이 허다하다.
한 오십 센티쯤 두고 조심조심 나가니 굴이 하나 있습니다.
굴을 찾아 가니 우리 동포 10여명이 손을 잡고 울음 우니
참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불쌍한 우리 동포 불을 끄느라고
2, 3일 저녁잠을 못자고 앉아 졸면서 4시는 되었는데
우리가 있는 굴 근처에 대포 소리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산을 넘어가자 하니
십이명 가운데서 4~5명이 나와 나간다고 하니
일본 병정이 총을 들고 앉아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발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갈 길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

다시 정신을 차려 근처 굴로 들어가니
우리 동포 십여 명이 앉아서 하는 말이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고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한다.
우리들은 그 굴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보니
병정이 하는 말이 조선동포 모이라고 명령을 한다.

총알이 비 오듯 하는데

음력 15일 대낮같이 밝은데
불쌍한 우리 동포 모여 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배를 끄집어내려 가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자고 한다.
우리 동포들 하는 말이 오늘 저녁은 다 죽는다.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하고 정신이 막막하여 지더라.

그럭저럭 시간이 되어 밤 2시는 되었는데
독한 종자 일본놈은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갈 끈과 나무토막
하나씩을 메고 가자고 재촉하는 소리에
우리 동포 죽지 못해 나무를 메고 배를 꺼내려 가는데,
미군이 우리를 보고 기관총으로 총을 쏘니
총알이 비 오듯 하는데
그 사이를 피해서 배가 있는 굴까지 도착하여 사방을 살펴보니
미군이 올라와서 총을 쏘니
배도 꺼내지 못하고 논둑 밑에 피난할 때
병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날이 밝아 배를 못 꺼내니
조심하여 마음대로 각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라 한다.



우리 동포 사방 산천에 해가 떠서 올라가는데
총알이 비 오듯 하는데 천명이라도 살기를 바라리요.
정신없이 올라와서 먼 사방을 바라보니
불이 나서 불꽃 밍이요 총소리가 단불에 콩 튀듯 하고
죽은 시체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더라.

굴을 찾아들어가니
우리 동포 20~30명이 앉아서 하는 말이
반갑게 들어오라 하여 그 굴속에 들어가서 보니
앉아있을 틈도 없었다.
그 몰골이 오죽하랴.

이번 전쟁은 일본이 진다하는 동포들이
손을 들고 나가자 하옵니다.
그러나 왜졸놈의 눈에 뜨이면 총을 쏘니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

머칠 동안 굶어 기운들은 없고 밥 맛본 지가 두 달이 지났다.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는 우리 청년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버티었다.
그날 오후 4시 반이 되었더라.

수건으로 기를 만들어서 손에 들고 줄을 서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와서 보니 이십 여 명 중에 6~7명은 산으로 가서 태평양을
살펴보니 일본 병정은 보이지 않고
미군배가 와서 넓은 바다에 혼불같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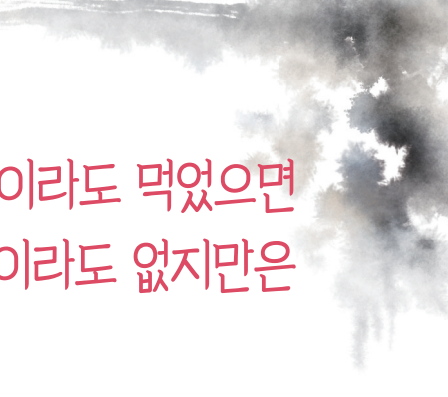
그 배에서 우리를 향해 대포를 쏘니 천지가 뒤바뀌는 듯하다.

불쌍한 우리 동포 갈 길을 몰라 깃발 들고
나가지도 못한 채로 총알은 비 오듯 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정신을 차려 굴속을 찾아가니
우리 동포 이삼십 명이 앉아서 반갑게 들어오라 한다.

그 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피난을 하고 나서
이월 십칠일 밤에 전과 같이 배를 꺼내러 가자 하며 준비를 하라고 한다.

우리 동포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도 배 꺼내러 갔다가 배도 꺼내지 못하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병신 된 사람도 몇 명이었는데
오늘 저녁 만일 배를 꺼내러 간다면 우리 동포 다 죽을 겁니다.
하면서 울며불며 말하였다.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아니할 테지만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라
죽지도 못하고 일본 병정 명령으로 배를 꺼내러 가기 전에
이 불쌍한 우리 동포 너무도 불쌍하다.



밥이라도 먹었으면 여한이라도 없지만은

밥이라도 먹었으면 여한이라도 없지만은
배끓아 죽이든 살리든 이 몸은 어떻게 하면 피하지도 못한 채 못 이기며
총알은 비 오듯 하는데 어제 같이 배 꺼내러 배굴까지 도착하여
사방을 살펴보니 배를 둔 굴 앞에 미군인지 왜졸인지 죽어서 있는데
우리 청년 보려고 하니 일본상관 명령으로 못 보게 하옵니다.

먼눈으로 살펴보니 팔을 친 후
죽은 사람의 옷을 벗기어 조사한 후에 상관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도 배는 못 꺼내니 돌아가라고 한다.

불쌍한 우리 청년 오든 길로 돌아서서 기어서 오니
시간은 밤 3시가 되었다.
하루 종일 피난하다 보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밥이라고 과자 한 봉지 주면서 하루 종일 먹으라 한다.

한 번에 다 먹어도 양의 반도 안 차는 것을
하루 종일 먹으라니 배고파 죽을 것이요,
왜졸놈 하는 말이 군부들아 낮에는 굴을 파라 하니
차라리 자살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며 쑥덕쑥덕 한다.

유혈이 낭자하고 정신이 아득하여

여기서도 죽을 거요 하루속히 죽어지는 것이 고생들을 덜 할 거요.
7~8명이 둘러 앉아 하는 말이
고생고생 하다가 살아서 고국을 돌아가서 부모형제 만나보자
하였더니,
몇 우리 청년 오늘 막 죽이라 하면서
여기서 죽으면 하늘이 다 알고 땅이 다 안다 하면서
울며불며 수류탄을 손에 들고
심지에 불을 달아 삼십분 동안 있으니
폭탄이 폭발하여 7~8 명 중에 두 사람은 육신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나머지 사람은 정신없이 쓰러졌다.

잠시 후 정신 차려 일어나니 두 사람은 영영 죽었더라.
7~8 명 중에서 6명이 살았어도 유혈이 낭자하고 정신이 아득하여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루 종일 누웠는데
우리 병정 보고 일본 병정한테 일러 병정이 와서 보고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라고 했다.

그럭저럭 날이 가고 삼사일을 지난 후에



일본 병정 조선군부 모아 놓고 밤에는 굴을 파라는 명령이 내렸다.
사방 산천으로 흩어진 군부를 모아 중대에 모아놓고
너희들 들어보아라.
중대를 흩어지게 하지 말고 노역중대로 정할 테니
낮에는 굴 안에 들어가 있고 밤에는 밖에 나와 폭탄을 메고
갈거라 하니
그 중에 우리 동포 하는 말이 배가 고파 폭탄을 못 메겠단 하니
소대장이 때리려고 한다.

명령을 못 이겨 십오일 동안 다 메 올리고 나니
밤낮없이 굴을 파고 뼈만 남은 우리 동포들 하는 말이
죽었으면 이 고생이 없을 텐데 하였다.

일본 병정 우리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일이 없다 하면서 우리를 굴 안에 가두어 놓고
굴 문을 철창처럼 목문으로 닫아 놓으니
우리 동포 굴 안에서 답답하기가 한량없다.

목이 말라 물을 먹자 해도
굴 문밖에 왜졸놈이 총을 들고 밤낮없이 지키고 있으니
꼼짝할 수가 없었다.
불쌍한 우리 동포 하는 말이
몹쓸 놈의 왜졸놈아 밤낮주야 일을 시키고
일이 없어 굴속에 감금하고 물도 안주니
목이 말라 나 죽겠다고 울며불며 원망하니,

왜죽놈 하는 말에 너희들은 죽어도 좋다 한다.

우리 동포들 물을 안주니 못살겠네, 못살겠다.
배고파 못 살겠다, 이래 살아 무엇 하나 하면서
목을 매여 죽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고생 이 고통을 부모형제 들으면 뼈가 녹고 마음이 쓰리리.
누구하나 부모 없는 사람 있으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 고생 이 고통이 웬 말인고
슬프다 탄식한다.

그럭저럭 세월 가며 한 삼사일 후에
소대 배급으로 병정이 하나씩 데리고 가서
수통에 물을 넣어 가지고 오는데
배고파 뼈만 남아 있으니 힘이 없어 넘어지고 간신히 오는데
병정은 뒤에서 재촉을 한다.

그럭저럭 굴문까지 도착하니
굴에 들어가 수통 물을 돌리는데
우리 군부 목마른 차에 물을 보고 환장들 하였다.

먹고 싶은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배급처럼 한 모금씩 먹은 후에
우리 군부 하는 말이 못쓸 놈의 왜죽놈들이 이년 동안
동거하며 일 시켜먹고 이런 고생시키느냐?
굴 안에서 한 달 반 동안 굶어가면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굴속에 살아간다.



하루는 출석을 부르는데
한 사람이 답이 없어 툇 쳐보니 배고파 굶어 죽어 있다.
우리 동포 한 굴속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있으니
목숨만 살았지 어찌 살았다고 하리요.

그럭저럭 이 삼 일을 있다 보니 병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오늘 굴밖에 나와서 바람 조금 쐬라하니
빼만 남은 우리 동포들은 죽어도 해라도 한 번 보고 죽자 하며
굴 밖에 나와 산천을 살펴보니
우리가 토굴에 들어갈 때에 작은 ‘아끼도’에 풀이라고는 없었는데
이제 보니 산천에 풀이 푸릇푸릇 한 것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살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신세타령 하였다.

그럭저럭 시간이 가 오후 3시는 되었는데
병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굴에 들어가라 하니
어느 영이라고 한마디 말도 못한 채 굴속에 들어가서 배굶아 가며
열흘 동안 신음하며, 우리 동포 하는 말이
여기서도 죽을 꺼면 생각 생각 깊이 해서
미군에게 손을 들고 포로가 되자 한다.

우리 동포 병정에게 하는 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어 물 먹으로 갔다 오겠다 하니
병정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고 하여 병정하고 가서 물을 먹고
생각하니 굴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앞길이 안 보인다.

너희들은 오늘 총으로 죽일 것이니

우리 동포 4명이 병정을 따돌리고 내달리다 왜졸놈에 붙들렸다.
올라가서 들어보니 ‘아끼도’ 부대장이 명령을 내리는데 4명을
결박하여 이 삼일을 두었다가 죽이라고 하옵니다.

병정이 명령을 받아 4명을 결박해 놓고
밥도 물도 주지 않고 배고파 죽게 하였다.
5일이 지나 음력 4월 15일이 되었다. 하루는 밥을 돌리는데,
결박된 4사람 그냥 두고 주먹밥을 조금 먹이고 일본 병정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오늘 총으로 죽일 것이니 그리 알고 있어라 하고 나서
끓은 우리 동포 5~6명을 나오라고 재촉한다.

어느 명령이라고 안 나갈 수도 없어 나갈라 하니
이년 동안 동거하며 살아온 사람을 문을 구덩이를 파라고 하니
불쌍한 우리 청년 동포 불쌍하다는 생각뿐이다.
우리 동포들 미군에게 죽을 줄 알았더니
일본 놈에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이놈들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신세타령 하다 보니 결박된 4명이 하는 말이



아하! 우리 동포들아 자네들 들어보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으니, 자네들 살아서 고향에 가거들랑
부디부디 날짜를 알려줘 제사 지낼 적에
다른 것 차리지 말고 밥이나 많이 떠놓도록 바라네’ 라고 부탁하며
울며불며 한다.
우리 동포들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럭저럭 시간 되어 왜줄놈 다섯이 총을 들고 와서
결박한 네 사람을 끊어서 한쪽으로 각기 따로 세워놓고
우리 동포 5~6명을 불러서 사람하나 누울 만큼 구덩이를 파라고 한다.
구덩이를 파라고 하니 앞길이 안보여 주저주저 한다.

‘아끼도’ 부대장이 구덩이를 파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일 것이라고
재촉한다.

우리 동포 5~6명은 명령을 못 이겨 구덩이를 파고 나니
병정이 하는 말이 너희 네 사람은 구덩이 앞에 하나씩 서라 하고,
한 사람 앞에 병정 하나씩 서서 총알을 넣어 가지고 서 있는데
부대장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흔들으니
일시에 총소리 한방이 땅! 하더니 땅이 뒤흔드는 듯하다.

우리 동포 5~6명이 그 모습을 보니
네 사람 중에 셋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안 보이고
한 사람은 빗맞아서 죽지 않고 하는 말이
독한 놈의 왜줄들아 죽으려면 속히 죽여라 하는 우리 동포 포악어로
나오는 소리에 산천이悶힌다.

이때 다시 총소리 한번 나더니 병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총알도 아깝다 하면서
죽지 않는 우리 동포들에게 속히 물어라 하니
우리 동포 하는 말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물어라 하니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 동포 불쌍하다 명령을 못 이겨서 혼자 가서 묻고 나니
살아서 흠이 들썩들썩 하니
독한 놈의 왜줄놈들이 빨리 묻으라고 소리친다.
그 네 사람을 다 묻고서 굴로 돌아와서 생각하니 고국 생각 절로난다.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라

그럭저럭 삼사일을 지난 후에

밥이라고 주는 것이 뽕잎 짝과 풀잎 짝을 뜯어다가 섞어서
밥을 지어준다.

그 밥을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요

개와 돼지가 먹을 밥을 우리에게 주니

그것이라도 죽지 않으려고 먹어야 하는 우리의 고생은
태산보다 더 하다.

배가 고파 우리 동포 배끓아서 죽을 거요 이레 살아 무엇하나
차라리 죽어 없어지면 이 고생은 없지 하며 슬퍼한다.

우리 동포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라

아하! 우리 동포들아 어이하면 좋겠는가?

우리 동포 울며 불면서 7~8일을 지난 후에

우리 동포 두 사람이 밤 12시가 되어 배가 고파 못 견디어

잠자다가 왜졸놈의 눈을 속이고

벼라도 훑어 먹자고 하면서 굴 문을 나와서 가려고 하니

배고프고 기운이 없어 주저주저 하는데

운수불길한 우리 청년 두 사람이 왜졸놈의 눈에 띄어서

붙잡혀 들어온다.

앞전의 동료처럼 붙들어 매어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닌 밤중에 무엇 하러 나갔느냐 하는 소리에
우리 동포 두 사람은 살려고 풀을 뜯어 먹으려고 나갔다면
사정하고 애원하며 바른대로 알려주니
왜줄놈이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두 놈도 죽일 터이니 그리 알고 있어라 하면서
손을 뒤로 결박을 하여놓고 왜줄놈은 돌아갔다.

두 사람은 결박당한 채로 밤을 새울 적에
불쌍한 두 사람의 거동보소 두 사람 하는 말이
‘우리 팔자 기박(奇薄)하다, 우리 팔자 기박하다.
이 고생이 이러하고 요 모양의 신세로 이리 죽을 줄을 나 몰랐네.
나도 남들처럼 태어났건만,
때를 못타 이리하고 시를 못 타 이리하고
에고 에고 내 팔자야 이 고생 하다가
이런 신세로 이렇게 죽을 줄 나 몰랐다.’

신세타령 하는 형세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 하고
천지는 막막하여 보이지 아니한다.
밤은 야밤중이나 되어 천지는 잠든 듯 고요한데
울며불며 신세타령 하는 소리 찬란하다.

새어가는 밤은 새벽을 지냈던가 계명성(鷄鳴聲)이 들리는구나.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밤아 밤아 새지 마라 밤만 새면 나는 죽네’ 하면서 울다보니
밤이 새여 동방(東方)이 밝아 해가 뜬네.

그럭저럭 시간이 가서 오전 열시는 되었는데

왜졸놈이 와서 하는 말이

일주일을 굶겨 두었다가 죽인다 하니

두 사람 하는 말이

‘천상도 무심하다, 무심타. 독한 놈의 왜졸놈들 벼락도 안 맞나,
하늘도 무심하구나. 왜졸놈아 죽으려면 하루속히 죽여 다오.
물도 주지 않아도 죽지 않으니, 우리 목숨 모질기만 하도다’
‘모질도다 모질도다 우리 목숨 모질도다’ 한다.

신세타령 하다 보니 하루 이틀 지나가고

죽일 날짜가 가까워 오니,

어느 날 시간은 오후 4시는 되었는데

왜졸놈 하는 말이 ‘너희 두 사람은 오늘 막 죽인다’ 하면서
나물밥을 한 손에 주며 먹으라고 한다.

두 사람 하는 말이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평생에 포은이 밥이니

이거라도 먹고 죽자 한다.

먹인 후에 병정이 하는 말이 죽으러 가자 한다.

만화사우곡

삼경에 잠을 열고
침전에 앉아보니
강산은 적적하고
추억은 끝없도다.
창문을 열고 보니
고국 회포 간절하다.

어젯밤에 내린 비에
만물이 잠을 깬것만
지나가는 바람소리
남의 간장 다 녹인다.

흘러가는 파도성은
고국 길을 구경 가자
침침칠야 어둔 밤에
죽장을 부여잡고
사방을 따라가면
고국강산 보이런가

죽장을 재촉하여
만약 천봉을 나서니

고국을 생각하여
귀청도 붙여 제성이라
씩는 간장 다 녹이네.

서해의 반야월은
뜻 없이 지났도다.
하염없이 씹는 몸이
정신을 수습하여
청죽(靑竹)을 마디 찢라
통소를 만드나니
어와! 세상 만향
일곡을 들어보소.

천지는 아득하고 막막한데
하늘을 바라보니
소로는 몇 천리만
육로는 몇 천리요.

산을 넘어 가려는가
물을 건너 가려는가!
산은 첩첩 침봉이요

물은 망망대해로다.
북두칠성 비친 곳은
고국강산 완연하네.

선조유품 좋을시고
인심풍속 좋을시고
일변풍진 바람소리
무궁경계 어떠시고.

곤륜산 일지맥과
백두산 제일봉의
팔짱선녀 놀던 곳은
이곳에도 있건마는
흘러가는 압록강은
수삼 철에도 그 뿐이요
관동 별경 금강봉에서
유람은 어떠시고.

신선은 간곳없고
만고풍상 비바람에
헤어진 빈터만 남아있고
만월초성 주초(柱礎) 밑에
무궁화 한 가지는
설풍에 홀로피어
새싹을 품었는가.

태백산은 늙은 범이
제소리 처량한들
무인지경 영남촌에
인적인들 있을 손가

산골의 훈주매화
설중에 홀로피어
모진광풍 비바람에
정절을 지키려만
임조차 없는 너는
매화향기를 찾을 수 있나
만경창과 대해상에
백구(白鷗) 빛 그 뿐이라

가자 서라 멈춘 자취
다시 안겨 일보 이보 가다보니
벗님 생각 절로 나서
산설고 물설고
물 설은 무화지에
그 곳을 찾아가니

어제 성탄 우리 벗님
오늘 보니 무덤이라
오호라 황천 가신 벗님네야
그대 이별 들어보소.

너와 나와
무슨 팔자로
좋은 세상 오지 않고
차 세상이 생겨나서
우리 벗님 되었는고.

우리 둘이 맹세할 제
수화금창 중이라도
같이 가자하였더니
너만 홀로 이곳 와서
무섭게 오는 탄알 앞에
무주공혼 되었구나.

여보아라 벗님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나라에 받친 목숨
명령에 복종하여
부모처자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올 때
각처에 모인 전우
초면에 인사하고
동고동락 맹세할 때
우리의 벗님네들
나라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때

금의환향 하겠더니
돌아오지 못하는
결말 없이 혼자가나.

기이하다
이 세상 벗님네야
그대 행적 용감터니
난데없는 적탄아래 너와
무슨 원수라고
이다지도 많고 많은
군의 몸이 부딪혀서
용감하던 군의 몸이
별안간에 황천이라
어찌하랴 어찌하랴
이 일을 어찌하랴

편작도 쓸데없고
선약도 소용없네.
이때는 마침 오경이라

소총 대포 올리는데
벗님 정신 다시 차려
이내 손목 다시 잡고
눈물겨워 하는 말이
이 몸은 그만 간다.

친우여 근근이
살아온들 남아잔명
설지 않고 죽습니다.
죽기는 싫지만은
오대독자 이내몸이
선조 득죄 이 아닌가.

대대 유전 착한마음
적선 적덕 하옵더니
자손 영화 있을 손가
장부일신 독한 몸이
다시 갱생 하련만은
무주 반사
나의 피를 충혈이나
될까이나
거년 삼월 한식날에
요조숙녀 만날 적에
송죽을 앞에 놓고
백옥 잔에 술을 부어
백년결의 맺은 후에
종고낙지 하자 뜨니
청송이 변하였나
죽절이 곱어 재로다.

나는 간다.

영결중천 나는 간다.
머나먼 길 나는 간다.
이말 한말 남겨두고 영영히
돌아가고 말았구나.

기가 막혀 한숨 쉬고
다시 소리쳐 벗님을 찾아보니
씩어가는 그대 몸이
대답할리 만무로다.

현해에서 하던 언약
어디 두고 혼자가나
재차 삼차 불렀으나
한 번가는 군에 영혼
묵묵부답 말이 없네.

동천 하늘 새벽별도
낭루로 보내도다.
해동조선 명성지도
도처마다 많건마는
무명소도 무화지에
벗님 무덤 짓고 가네

천산도 알 리 없고
신명도 야속하다

오대독자 잡아가니
호소할 곳 바이없다

오호라 벗님네야
기가막혀 말 못하네
너와 나와 둘이 와서
이 몸 하나 돌아가면
그대 부모 나를 잡고
무슨 말씀 물으실까

할 말이야 많건마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정처 없는 청춘화상
벗님 무덤 앞에 앉아

강남 명월 달빛 아래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한숨 쉬고 눈물지며
한 자 두 자 적어
청조새 가는 편에
말을 고국 전하여라.

등불 아래 세상사람
한줄 두 줄 보실 적에
눈물도 흘리리라.
원한은 엇더실까.

檀紀 4281年 2月初 4日 膽書
徵用記念日記集

서기 1948년 2월 4일 등서
장용기념일기집

부록

수기집 원문

故장윤만 일제 강제동원 명부류

수기집 원문

대동아전쟁 실기집(大東亞戰爭 實記集)
[디지털화 협조]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가서 시와 노로 면창어린 하얀마리 자나면
드오보리 자시름하는 뒤는 모지아는 뒤
주가니 기하는 이리 원되오니 조질도 열여
만요 단여오기 흠음되다 면살을 더러운 후
에 시간을 보니 벌지 오후한 시나 되어
드라 면직언드나 이갈 길을 재촉한다

불상한 우리 청년가련하기 짜기 열년
직언드나 을따라 高州郡을 더러서서 본
군에 이르러 가니 각 면에서 모여 단파거
려져 루시 간가니 오후나 시가 더러운
라우리 청년모여노코 郡守영감하는 말
리 자시름드름이 변가는 뒤는 머지안
현된구나 조곰도 열여만 고단여오리 저

리고 기한까지는 알수 없나 우리 청년가
발더러 후에 알시에 한사한 다 유업
노시기는 벌지 열선시는 더러워라 본산
에는 치가지고 열출동방에 달이 뜨니
최초를 정하는 뒤에 더러간 정하던 고간
동여간 정하더라 여간의 더러가서 이상
심물잇따하니 전역밤이 드리온다 밤

상을 북서 그루기 짜기 열가 밤이라
고주는 저시시속갓타 더러마 람하는 뒤
별기이전물을 손만 주저서 석기 주시름
살을 면우리 청년을 면더시며 고나리 각
처소로 더러가서 거거동을 북이 온직언
며 직언이 문에서 오동할수 전히 열되
부상글우리 조선 청년더라 더러보니 온
람여시 시작을 아이며 가튼 우리 자유가 업

서니 불항하기 짝이 없니 거력저력 밤이
더러거살밤을 지닐 처에 잠은 못지 아니
요고 홀로 산자 생각하니 부모 염성 처자
염성 박리니 년교저런 생각저런 생각
하다보니 제명성이 우노구나 하도 압
담하던 말이 날하 새 자 말하 살만
새면 나는 간다 하다 본이 동창에 회가
도라 문창에 가 우을 지에 고 답이 어이 할

고 닳던 한우리고 항부모차자여 리두
고 닳던 혼로 닳다 말가선우로 다 연우로
다 날모디는 늦은 연우로 다 탄약 하다
복문 문방저쳐 부러드라누가 와서 부러
던고 문열 열고 나가 본이 아침 하늘은 맑
기리고 고 때는 하절이요 오달은 旧五月 두
一目이요 상주역을 더러갈 제 끝을 부
에서 사랑은 열장고 우려울고 열고 보고 우
려을 재일은 종자 아니고 야는 문안 형이

리업더라 가건보던 처자들은 여려진
시동애업고 빙우락은 열 끝에 친 주가
눈물을 흘리면 서역전까지 따라와서
남편애손을 잡고 울면 불며 하라 말이
임아 산군임아 임은 부모 처자 새 각
따가 병이 날까 염여르다 누무생각 마음
시고 만수무강 슬픔다가 고국을 아서 외
말을 고사유시카 손잡을 처에 뒤장부

에 일흔 잔장마디는 늦은 것 닳다 삼유할
을 우리 정을 약주로 작별하고 저하
눈물이 양현가리에서 삼갈이 안모면
저에 연우누우기 차소^보면 연기외여가
면우리 형열 때로는 다 깃차에 몸을
실고 항문열 열고 모니 서장 부장군수
모조리 나와서 기하소리 눈번치니 만
새라고 부러는 뒤우리 청연슬수영시

부모친자를 영수이 때여 두고 감천형
을 타고 갈 재배려고 / 은 깃차 은 변시
감천을 도차야드라 감천역에서 부
산해를 기라릴 재보살은 우리형 연우
형은 자야도 사람이 될고 가고 소변
되변 불나히도 드시놈이 달고 가의
글자 / 조선형 연수글자 / 거
러려려 시간 되여 부산형이 드르다

부산형을 바다 타고 티구를 도차야드
후시시니 되여 때라 우리형 연우
여어 두로 더러가 오고 회당을 때려가
정신법을 돌이키는 되거 정신을 무진
후에 두시만을 잇자야시 각군에서
모여든다 그 말 밤을 지노후에 군에
잇단 선본놈이 신히 정사를 막다
다리고 갈 재우로라 리고 가오 염병자

을 더러가서 사방을 살피보니 누런 양
북이 번병정이 총 쏘리 길을 뚫고
선 양을 살피며 부섭기가 청양
엄다 거러져려 시간 되여 일자로 시와
능로 일본놈한놈하고 조선병정
하고 두라시 신치금사지강 / 후
후에 열시 마령 되엿 때라 일본병정
한사람이 인도한 여덜고 군다 / 후로

드러가오 사범후교로 드러가시 / 파로시
와노코이 부을 돌이키는 되 무선이 부을
돌이트고 군 부을 돌이킨다 불쌍한
우래형 연군 부을 바던 후에 후교표산
로 더러가서 여리 후군 저기 후군 거리는
말이 어하리 동포 더러이 부을 받고 본
미군 후이를 임업되 / 자 무식 우래동
포군 후단 줄아라 씨라 되선이 / 하

아불경도한 일본종자명영으로불
선득자바온이외신인들출수인나
그러저려이는하다부서산에히가
지고월출삼경기날밤에잠연오지
안이충고홀노안자생각하사만가지로
생각히도우리형연가는되는현업시
일선일세가자홀들주노했피자고
생각히도이몸을노여보면동흔놈의

일본종자^고향에잇는부모처자그양
투지아니출거시오피자히도그리홀고자
히도안처홀여하우리동로드라오이
하면주게는아이몸을노죽노그선죽그
도설자나연만하신우리부모생각과
동유달은처자홀노배를을니외자면
그홀을이오작하가그런생각저려생각
생각다홀노안자생각하사기명이우는

구노기명이우리후에예좋은나와서
나발부년구나나발소리놀너외여소
변디변갈나히도이홀동한놈이문안
에안자경애안한다하면생도치고들온치
이무사홀유리형연미반는거시원이리야
그러저려^드름을지산후에영창열고너
다보이근치인느우리동로부모처자으
렐자사등에엮고을면불면차저외서

은은으로인사하면백옥갓트설고에서
각주갓트^문문을현이오나와모리디장
부의바음이라노문물안홀너리음쓰하
자지되는마음에는한그름의하여가서부
모처화후리잡고말리라도죽고심피나연
본종자가봄으로가지도못홀고디장부
에일춘간장다죽는다몸신누우인홀
놀몰은을보다하면디장새을손에

들고나서이면는 쉼리고 드로오이면 주라
시말을 마디할 수 있음 시쳐리 한이 분상
하디 후선 동모불상 하디 그러저적
三日를 지년 후의 이복분배시전 후의
무리 청연 모의 노로 잡되는 법을 가르친다
집을 해여 후에 진이를 입음는 병정이라
그러저러 수일을 지년 후에 홀로 산 오후시
시노 되년 노 되일 시에 잠을 저고 모여라

한노말에 이즐 놀이 삼인 나반을 면사
범하프쓰는 전의 꼭조마다 눈물리요 작
마하술이라 무전나서 보니 산티산
뜻술다 자식 보년 부모들과 가운 보년 처
자들이 으린 자식 등에 읊고 전하 지다
종나와 무름을 다 잔군 된 자 부나 처자
무산형상 보고 일촌 잔장다라는 국싸이
니가 장라는 티는 눈물리 주려 마는 한숨

이바람 되라는 잔장 주려 만 주이면 그
러저러 정인 읊시 다 본이 여전 에 당도
주여 올면 불면 여전 마지라 오는 부모
처자를 여전에서 영작 별을 고정 처음
시디 합산로 드로잔다 리합선에 드로가
러부산해를 기라 리산재 한시 간 동안
기라 리니 그문영기 기여 가면 부산형이
드론 온다 높고 독술에 병의 열이 여기 차

에올나 본이 봉창영는 곱비다가 들음
시차여 녹조문 주차다 너 쉼은 온유
월드복드우에 공기 도망 디로 시지 못을
유이 리 현이 너 몸이 답々 하와 유지 갈
고생 각하하 읊되 갈々 하다 그록 저록 뒤
구역을 쉼을 쉼는 눈물 이압을 가하 보
이 리아 하하 무리 한기 차을 유시 간 새
에면 쉼 부산영을 뜻차 하하 술사 를

정하는 뒤에 더 정하는 고혹히 다름을 드르니
 자리를 살피면 이 비잡아서 산 절름도 업고 쓴
 으로서 살피는 것이 우리 고행성 각이 절름
 다고 생각으로 그 살방을 지날 후에 얻는 것
 을 여여 등에 지고 열을 더리듯 착하여 선창사
 을 살피면 이 전신만 진병정이요 동동한 수저
 여음의 열을 선에 물을 살피고 망정창과 쓰날
 에 명창 열고 다본이 더장부의 마음인을 고국
 생각 절름나 더 우리 몸을 살피고 열은 여되를
 가나 배려기 달이 열은 수시간에 명은 살을
 드르니 서려나 머리는 더가 하간 선창이 분명
 하더라 열을 나리여서 처소를 차려 든다 어
 느의 간정하는 가 있창에 다름은 후에 五六日
 을 유한 후에 불상호선 창년 집을 매여 등
 에 지고 뽕사로 전스가서 선창을 살피면 이 더
 산 것 전범에 오나 가서 이 창년 에 드르니 가서
 四五十名이 산 안근이 양오 것은 우리 창년
 답하기가 말을 수 읍 더 불도 답하야서 바람조

곰살나 하니 두 손놈들 어에 병이 쓰마리
 매을 참지 못하야 마시드르간 다 드르니 자
 각 술이 술도 무이 말나 무경더서 술로와 술
 말이 반장나리 드르보소 무이 말나 주기 더
 볼모로로 장이다 사쟁그리 술이 두 술
 자는 말이 주으로 주러 술편이니 한다 물을
 저에 도라서 생각 술이 눈물만 개안나더라
 이와 같던 우리 창년이 공룡 뱀을 물너
 무어안 자는 말이 이 술 우리 동포를 라이름
 고살겠는 야 술도 답하야서 바람조곰 살너
 면애을 차다 목이 물너 물을 여자 술너 주
 도 주러 술너 이로고 살겠는 야 술모리
 각 술여 술너 기는 열다 망정창과 쓰날
 는 지안의 술고 빨이 달이 는 더 이와 같치 달이
 가도 일이 개월글 단이 불상호선 우리 창
 천명이 아니고 야사라 오기를 바라겠나 우리
 생각 술도 살기는 열이 열다 그리저려가는
 더이군에 읍이나 여너 저로는 가고 방으로 시

이갈재를상호우리형연석구운비안에서
상사인을상부술고인줄을늘려가여힘을
다스려와본이랑평양을드르선행해평양을
바라본이섯뜻뜻은우리고향상각산이로다
눈물리여눈노말이불상술우리동포드라살
날적에왔근마는우리팔가위이른고새을
무타이로술고아무리상각해도알수가적여음
니고성<해평양을드르서는밤낮주야로
드르칸다불상술고가련술우리동포들칼을

되드르안자심상인를지노후에다시<와말
정창과바라본이그은히성이술보이더라해
평양을드르온우리동포들을보고술도반갑
아서방수술을적에그성침보일제시간
니로명영노리그섬에나갈적에빛중되나리
노고<드르중되나리<드르중되노리는되
마인은중되노정처음이다나간다<드르중
우리동포들지나리<살려보이곳에민가
는일보시<아신곳고지라사<분명술구나

준정연이술은말이지나사변술을적에나명
군드신갑과로해설적에정영술기분명술과
무사서드노지<三日만에이섬에당도한
구노이려저러시간가여<후시시<지연노
디속사들정술은중이라우리동포선창까
세모버안저술노말이불상술고가련술우리
형연이줄에이와것은이곳들을바달줄누
가아리에고말<우리동포나<고생이려술지
모러지효이고생이원일이요<눈에는눈을

이비오듯술고마음에는에란이가덕술다<이와
갓치한식술들에통탄하<여려형연일에는
술은말이이변이더라<이와갓치당술은사<이
에무시간이지노든가드살준비하<여라<술
노소리에짐을뒤여등에자<고인줄을늘릴을려
라불상술우리형연방이되드르하<간이무
신지형산가운되빈집및해잇<혀러가<고지
안을살피본이<고가는병정들리시<여가는<집
일노라우리동포드르<가<지<집안을살려본이

누울들은 저역읍교안하시새우기가되었
스라불상상은우리청연모여안자하는말이
유리에나리면은편이잔줄아라쓰키모는가
너우리말자잠싸리꽃차이르호이으하우리
동포들라이르호엿지살개난아고심기참
참친후그날밤을새를저에엇뜻후은우리공양
싱각리호는다그러저려엿싸본이일출동방
해가쓰이이존을늘변서나와보여서서한짜로
시외누코이를가자고재촉후드라아침을문

우리청연이존을늘싸라서선창싸을듯
차후야사방을살리본이선창싸라하는뒤
는군속의잠이와서티산갓치모안는뒤압
참글문우리보고그잠을운반하라후니불상
후우리동포죽기못하야후를저에기운토
업고비논오주곰푸리호호는노라키모
이공문은잠々후와천지도안보이교이리비
를저리비를후다본이싸는는잔이뒤여정
심밤을주가바리쓰이정심주하아니주교그

날해를일길러에종난그와다름을여라그
러저려해는지고수사들들은다저역밤을주
는뒤밤을돌여본이八十名이므글밤이四五十
名이므그도전진까말가술그설八九十名이
모모씨의종일들은우리청연모근지만지후
와정신이까불々후다아고비리야못살책
너비곰파못살갓너모호라에란이여엇지
후야일줄의은수를갈히고이모갈이가그러
저후사요일이지는후에후호은이사술는지

무엇인지후다후면참을침길후는후야참창
전을후여저고일줄의다를싸라서드르가
리니국미하교에드르가드라그후교에안후
로는밤도종드주교배급도주면주야장천안
마호이불상후우리청연그물물이오자후
리불상후은우리청연이라무정새원은
여류후와그력저후주개원을지닛쓰라
비란잔이줄들은이또이사연지무어신지
후다후면침길일을후라고후야불상후

리청연장을매여등에지고이즐놈의디물
싸라서이사한집을살려본이선글무기싸
이음너마당이라하는그선물리너선우그지
고을도당도읍는짐에더러가서잡수리를
놓고이전반은일을보시고전반은놀기대
여일보시고나문청연은선그지물출다하니
오리서노리업는총소리가는는듯하다불
상술우리청연은총소리에늘나서사방을
살피본이인즐놈들이선치면서여바라군부

들라바라하하지말고금의글속으로드르
가거라외군외비행기가사방으로나라든다
하노소리불상술우리동로거동보소그말을
듯고열골이불그락후러라하면이리저리
글속으로모여든다모여안자하는말이으하
우리동로들라큰일났다저공중에서
비행기음으리비행기나국비행기가분명
하다안재는들임읍시다죽구다외색읍
이잇싸술이미군비행기가목관탄을쏘지

여서뽕수거를이작술다무식한은우리
동로비행기는선치는디구경을하다하며
올바키선치은이인즐놈들이매를들
고싸다리도듯지은코선천적에미군외비
행기는五六月사비와갓쓰라불상술우
리동로홍살을외히면서글썃에드르안자
시간을본이벌서오후사시는디여여라인즐
놈들먼저는외군부를부렸다다불상술
우리동로글바끼는서본이나와천지으리니문

는총고불안노리읍삼이다북군에즐놈의그동로
수무식한은우리청연에상하는사람들이등이불으로
가자하디우리청연술주업시싸리가서불을소
고드라온다일모가디여전역밤을머전후에
그리장쪽으로드르가서그밤을새울적에잠은아
니오고쌔쌔한은우리고향심각전노의장식함도
잇지물술우리고향도라가면보호형재잇쓰만은
요모양이리될줄노몰난디그록저록그밤을새
이잇흔노이르니사앗창을무고한이아흡시는데
연노리우리동로사람을미고드르온다우리잇는

출입위장하는이를 끝을본이불상호우리물로
다섯사람죽은신히그들중일두엇싸가잇는상
나무에신히노와석구호동우를흔치고장
을승고다섯각에싸를주어다마가지고죽자신
노더근가면서죽노말이조선사람죽은그선그다
지로되집준이그을드프본라후은이그말을
드런우리청년안이강강후와정신을이엇싸하
이가같이그마음을쓰우는우리청년이모양이인
일인가영보종자여자와연수를가루리가그록
리틀잇싸준이삼소뒤에군부틀리정신음신저

여와서하는말이이하우리군부드라큰일싸하
우리후군부드라군부들은상분지일은안보이니
목은노지사런노지말수가저여음너그록조록호
사람드라오고두사람도라온다이상안리노후에
일자로시와노조시연본이십오명은안곳음싸그
늘을지년후잇는늘이르노시말을자자후은이
일본병정을싸라서불천지로드르간자후시
간가령잇싸가이전의잇는군면후에싸을배
로잇는그설은반죽자후은이불상한우리
청년안이가면리를드고싸라니만는그설

참지못하야호는이라그록저루十三時가지
니정심을가루와서주목밤을들이노되불상
준우리청년정심을먹연이반호구도안되드
라일본병정안이불더가방싸을목고근히
그늘을지노고집으로도라와서저녁밤을살피
본이그전에먹든전반타라다라후드라우리청
년밤을보고호노말이이하우리동로들이아밤
때고어이사라그록저루잇는늘이였다아침밤을
묵고노서선창싸로알을간다연을가며살려본이
사람죽은심치가여기저기누으잇고말는죽그라

서잇고그록저루선창싸을도차후안만경창파들
보이선인들이죽으사여기저기선잇는라불상을
우리동로드루음을무릅싸그불란잔주먹은주
다가방며쓰시무는우리동로오자비가과퍼리호
주어머검을보면일본놈이모던기죽음선라그록
저루그늘을지노후에미알한치미국비행기가노
날새성시공심준이민간들드외집죽야가우리
청년들도날다외란을잔다우리청년파편간들
은준시라도조용을싸가엿싸라을을짓고후숨이여
호노들이은수루다<뒤돌아전쟁이은수로다후여

바로일서업다 쓰후는들이이리호고살겠는대후
리죽은스읍서지면이른고심안니할것후자후이
천후이로사자후고심이라이리호한이미일
치니고심으로후개월를리후에후로
돈을가지고와서두달을음이른후에二十六
인애인들이드름미일안파면고구마와菓物을
사서목고후이불가이리원이질지못후드라구
도사사목씨가사모를돈이업서배공후미일전
가음셔라이와장치불상후우리청연뒤구서
은공복을엿뒤가지안버셔서형복후드라지
위

유안이드라이와장후우리에고심을리산이리도
후이음쓰드인셔가은셔모소하이심연二月
이라셔셔후은우리고향에는春節이라셔산천에
초목은후이리고전에는버리셔이후렸
는지후에으로친다셔셔후은우리고향보고심소
가고심소벌서고향드노지연이갑까사주야로
고향갈사바래셔이무식후우리청연후는말이이
에후선드르문이그집을다들면우리삼고향다
견낙을삼고이삼연지후후에정고향후선집을다
부후연고향간다는심각을후셔주야로거집을

마후후에정미라후음다다무식후우래동포고향
간다후연함을뒤에등에뒤고선창사애가셔비
랑니고준비할제소뒤장이집을후후후는말이
스이를가는데이셔이불병후다후는소래천
지가망후와정신이후더라후처후시간리
여밤이되도록가고난이잇는날두차후와그
심연함을무르본이악사도후후음다다심
에너후속사를정후는뒤그후후알가다래여
이뒤이가자후는뒤그날은正月六日후밤에비
와셔물은천기뒤엿드라잡싸지면엿드지며

속사를차후는다후등드드후등드드무인지정산
골싸에속사후는보이더라안에드르물을키여
살피본이셔그무기작이후너와리호문을여
갈고후을여셔자리할고후야셔그셔를후을
고사후고무셔기가후정음너그후조후방이더
후셔셔차다본이후는이보이노뒤소마후와들
암후너그밤을근이새우고잇는날이리엿드
무선이를셔기는가병정에게무르본이후노말이
스여를리이른안사후고배셔너는말만이다
무식후우리청연배을셔년다후이무선배을

신년노고잇싸준이연심호로가잡디다병정에
디을싸라배인은곳을간이산밧태글을과고
비배만능은노로병정이하는말리이배는두
어싸가은듯싸에씨는야호미아래라까항공모
홍오면이비에다포그한살고술나타고가서그배
을싸술다술드라그리알호수사로도라와서이
상알를지닌후에이군에비해기가늘마라드르
오다불상술우리청연외에가이면지년저에
비가술도공파서늘물드르드목고송구도술로
목고나부열미를싸목오면선수인를지닌후에

술로는이군비해기가수십채가드르와서삼
천초목을불을질는노로조공만술악하도
에불천지저엿싸라이와갓치미일공성이잇
쓰잡시라도술시떨싸가엿드라불상술우리
청연잠시만비해기가아보이도불을으로가자
술이안갈나후면갈을싸에한노술이죽소라
도술수업니으글하다우리청연이교성
이연일안나그루즈루해는지고산세을
나사방을살되본이심천자가불은느라소다
사다무싸쇼삼사일을한이초목이라명색은

보이지안이술드라호로는이르느사안곰신디
여는디불를을나고나가니비해기가와서불
를쓰지못을고방구틈에모여안자되관을
다본이이더서노디읍는대로소리천지를을
이더라여외안천치구호는물이오하우리도
모들아를이엿싸살기는를이엿싸
총소리하는그시미군의총소리가을를에
치구호는호는물이여기서잇되말고살아도갓
치살고죽으도갓치죽자후면정으로가자후면
짐으로와서본이우리동포간되엿고글을차저

싸여진이예졸을병정두리하고조선동로四人
하드르안하삼발고돌고안자에졸을을을
이시루앙을을을주이면서그를가지고잇싸가
의군이오그를을을드리고느죽으라술이불상
술우리동로그그살바다을고눈물지여술는
말이오하우리치구드라이지는다죽을가바
다를디다본이오바다에바천지라공주에는비
해기로되로와소류랑과총살이五六月싸다
이비오드술뒤이싸에잇는우리동로술사
람이라도사라나면천명이오만무로다

그동안에 미군 병정들은 출버려나 유충을 그
리는 비우에서 충을 논이 천명이라 도외를
주음도 그 노름에도 충을 논을 반하라 한
이가 업는 우리 천명 다 마미고 의종의 디을
사라몬이 충에 마가 죽노사 람 효유 랑에 죽
노사 랑 함으로 인간에 모를 일은 그 생이 더라
그럭저럭 오후 六時는 디 연는 디 태 평양을 바
본이 배는 드서 늦채 박개보이지 안이 한드라
곳 석우리 천명 배를 모에서 목란을 비에다
시르주 그 충도 비가 곱과서 조금 안자 신노고
영

뜻이 미군이 온다 조공을 아사 드를 들음시
나선이 여개인노우 리들이 요동할수이서
가종연 굴에 안자 오도가도 못을고사유시
잇사한이 미군 들은 그 동부소우 리인노 굴
패다 비을대고 서을노딩기 변충을논이 보
우 리 동포 천명 이 아니고 야산기 를바라
리요 종일 토록 연수는이우 리잇는 구은
보고 충을논이우 리 천명 노달이 스로 소을
후여 함고 물면물면하는 말이이 하우 리
모든아를 지말고 정선차려라 오를 죽으면
영

밤에 고향가서 부모형제도 알트이지리 생각
외해라 속히 죽자면 서이 사본이은노
지었는 지시 산에 해가지고 일모디은이 미군
병정이 전반는 나르가 그 월반는 산에서
충을그럭저럭 오후 六時는 디 연는 디 태
고추을노사 굴에 아전우 리를은을지갈수
여음선충는 말이 밤이 두면와서가 아지
은정월보름달은 말은디우 리 동포충는 말
여리신도 죽은노로가 자해도 줄을노로
나가보자근히 굴을다와 병정이 안들서고

우리도 포디을싸라기서가가 자충다 충을
다본이 미군이 산에잇싸가우 리기산양을
살을뿌려는디 본정신은저여음고논씩
두루누워충살이그천후에싸기여가기
기면서살피은이우 리조선통호의주
오신치그양두오초점_은은잔이굴이
섬이다굴을차간이우 리 동포충이영이
참고우름은이참아모지못을노라
우 리 동포충는노라고三日지역
기안자자를면서 서이노디연는디우 리
영

에대포소리들이노라전일수가읍서서이산은
느브가자호이십이명가온해서四五人이외간다
준이알본병정이총을드르안자서느브지못하
기준이발길을들추고도라서간길을선각호
이준이부저는듯하다다시정신을차려
근처글노드르간이우리동로십이명이안자서
는말이드르을년속키드르오고느브갈나면속키
가그라축는말리우리들은글에드르가서준
이싸본이병정이총은말이조전동로모여라고명령
을니라수월을낮가차치받근뒤불상을우리동

포모여죽고축는말이이들은오살키여에비스너로가
는뒤마음을간이더고가자준이우리동로들준
말이오살키여는말죽이라축연눈에서눈물이비
오듯호정신이막호다라고죽전죽시간뒤여반부
시는뒤연노미복준중자이불상을우리동로글로
시외복로무너부축느브미묘가자고해축축는소리
우리동로죽지못하와너무을미고우리동로비스
너로가는뒤미군이우리를보고기간주와축을느
이총살이비오듯축는뒤그사이를뒤에서비글싸
지루하야사방을살피본이미군이을나와서총

를노으나비도못느브고느브막뒤피관술쳐병
형이축는말리이들은오살키여에느브리사베
스너니로삼축여마음뒤로산만뒤이로을느브가
글이라우리동로사방산천헛트저서을나가는
뒤총살을비오듯준이천명이라고도살기를바
리호정신읍시을나와서문사방을바라본이
불이나서곳했시오총살의소리가단불에공
리듯축고죽은신치는四방에업드르되글을
차저드르간이우리동로이삼십명안자서축는글
이방간기드르오라축와글에드르가서본이

아절름은히여읍느브이글을이오차축리이분
전재은알본이전라축는동로들이소을들글나
가자축읍미다그르나위준을놈의눈에싸이면
총을싸니갈하준이노처축에뒤안글머기운
은조곰도음고밤만본지가두달이재닛글미가
이와갓런곳통을밧는우리천연그리도죽지
안할나고그노오후四時만뒤엎드라스근으로
기를만드러서손에드르조를노서서느브가안
리중간에와서본이이십여명중에六七人은산
으로가서뒤피양을살피본이알본병정은안보

이끄미군비가와서는느바에흔물살여있서구비
에서뒤로을우리보고노기천지가리하는듯
다불상호우리동로갈길을물나주지<>가
다본이점<충한은비오듯하물기을바
라리오정신을차려글을차려간이우리동로
이삼십명안자서밤잠기드로오라하음다
그를리드르가해죽은피관을술고노이二
月十七日밤에전가갓치비소너로가자후
준비를하라후이우리동로하노말이어제
전역에도비소너로갓차가비도못소너고후에

다자후를자랄도있고병신도만미디엿는뒤오늘저
여만일비를소너다면우리동로다죽을곳요
한편을먼물원하올라하하죽어년면이른고
상안이한물죽자한이침후이오사자한이고생이
화중드문고알은변정명으로로고너로가기전
불상<<우리동로불상<다방이화도명이면
한이아습지만은비공화글을도한글이고피노로
가나한이비공화글기던이물은언뜻하면미운
이미의못이여충한은비소너는뒤어제
가치비구너로가는뒤비소너도차하사상

외본이빈글암때미군인지이죽은지죽은사있는
뒤우리침연본은후이언복상간명영으로못보
기후습이다문은으로살터본이관을쳐서죽는
차람에못살비서여조사후은후에상간이충한이
오늘전역에도비도못소너노라가라후이
불상호우리침연은은갈로드라사기여은이
간은밤드時<디엿는라후로죽은피관을다
배공과죽기디엿는뒤밤이라고주는그선가자
봉지주면서후로죽은후은라후이후다문
도만양도안하는뒤후로죽은피관을배공과죽

을소요에죽은말이군부들하나저로글을
파라후이차라리자살이라도충은그시조케년
속<<후은이여기서도죽을사후로속
죽고지는그시고생도를출소호七八人이도라한
자충는말이고심<후음여가고구을도라가서
부부하재만나보고사자충연은이오살이마죽이
라후면우리침연여기서죽도면충는이다알고
이노알지충연은면불면시루다을손에들고심
지에불을다라삼삼분동안이여후이
강이후관뒤여침연인에서두사람은유신

이 사방을 헤트리고는 사량은 전신 습시의 간
가령 잇쳐 술이 정신 차려 이르나니 두 사량은 영
영히 주긋스라 七八人에서 六人이 살기는 사
라셔도 유흔이 남자 높고 정신이 아득하야 읍
드리고 캄싸지면서 술로 흥얼두었는 뒤 우리로
보고 앞부터 정술치면 一사병 정이와서 보코
피병원으로 퇴묘가서 치로를 달랑간을 주야
쏟이다 그루즈로 달수가며 三四일을 지는 후
에 조선군 부모다 노와 밤으로 술을 파라는
명령이 나림이다 사방산현으로 향트진 군부

을 모와 주디 〱 모와 녹주니 이를 드르모아라
죽되 술을 죽지 말고 살노역시 죽되로 정술트이니
사정로는 술안에 드르라 밤으로는 밤이나 와 목
탄을 피고 읍이라 술이 그중에 우리 몫으로 술은 말
이 비가 곱과 목한을 못미겠다 술이 소위장이 된
나 술이 병명을 못이기여 심오안에 다미 읍이고
안 이 밤낮 주야 술을 화고 세만나 만 우리 동포족
웃싸면 이고 심이 읍지 술단이다 우리 보코 살노 말
이 느이 들은 일 이 읍다 술 단 술안에 느은 녹주
문을 묵문으로 천장 술이 우리 동포족 안에서

답스기가 술령 읍니 목이 말나 물을 묵지 행로
물을 묵바스개 병정이 이셔 술을 들고 밤낮 주야
지키는 읍작 술수 읍는 사정이 요불상 술우
리 동포족는 말이 몫심 읍어 이 술을 읍바 밤낮
주야 이 읍식기 북고 일 이 읍혀서 술안에 느은 두
어 물도 안이 주나 술면 목이 말나 나 죽세 회 읍
면 불면 술을 적에 병정 술는 말이 느은 들은 죽으
도 죽라 술면 불안이 읍이 못살 개시 〱 배 곱
와 못살 갓시 목이 말나 술을 읍니 이리사라 무
웃술나 술면 무를 매여 주는 사량도 자살 술는 사

량도 앓스라 이고 심이 곱통을 부모 형제 터려면
배가 녹고 다 읍이 써지리라 누구 부모 안이 러리
잇쓰라 아이고 새 팔자 야 〱 이고 심이 곱통이
원인 이고 살루라 타시 이여 그루즈로 시월가
여 술 三四日 후에 소위 〱 비 급으로 병정이 술
느신 다리고 가서 수도에 물을 느은가 지고 오자 술
이 배 곱과 배만나 문이 몫이 읍쓰리고 자빠지면
근스하느 뒤 병정은 다에서 갓 술을 한이 그루
즈로 술을 묵지 못하 술이 곱에 드르가 수도은
돌이 읍이 우리 군부 목마른 차에 물을 보코 술장

이요 무귀순물도 마옵디르 물으고서 배급으로 한
모금식터근후의우리군부충는 많이물부신수
무인줄눈아아현동만동그아여이을식기무
쇼이른고식식키는아글안에서달반동만글
머가면서해도보지못하고글종사를하다본이
날로노출석을부르느저술사람이담이읍서
차제본이배급화죽그썸이다 무귀동로한
글에서사람이죽으로도물지아복순만부듯
지사랑하고글리요그루조루二三日이셔본이
변적이글는말이느이들은은오날글박게노와서

우리 동포들은 말이며 리서도 죽음을 호소할 각
심각한 피해서 미군에 리손을 들고 호로 가자
한번 병원에 리하는 말이며 죽이 말 나 죽기 되
나물 드르기로 나 한이 병정 하는 말이며 치가
하악 병정 하고 가서 불을 먹고 심각 한이 글에 갈
라 한이 암 길 이 안 보인 다 우리 동포 四人 이 병
정 에 눈 을 쏘 고 기 여 서 말 이 다 위 졸 눈 에 불 들
나 여 을 나 가 서 드르 본 이 약 가 도 부 뒤 장 이 병
영 을 나 루 노 뒤 四人 을 닛 절 박 을 하 악 二 三
을 두 오 사 가 죽 이 라 고 하 음 이 다 병 정 이 병 영

미근의 주를 줄 아라 선이 안 본 눈의 주기 된 이
의을 못지 하면 주철은 아 주며 처신 처태
하루 본의 줄 막 한 이 사 람의 한 는 말 리 으 주
리 동포 들 라 자 니 들 드 로 보 이 우리 나 사 람 은
모 볼 형 시 주 기 된 이 라 하 는 사 람 처 모 랑 의
가 그 들 상 부 디 는 날 자 라 조 아 라 처 체 지 나
의 라 를 그 친 후 치 말 고 밤 이 나 만 이 눈 키 은 바
라 니 을 버 물 어 주 을 해 가 우 리 동 포 주 소 리 을
들 고 삼 기 리 안 보 인 라 그 들 리 를 사 안 가 셔 인 줄

늘 다 있 사 람 충 을 들 고 외 처 열 막 한 이 사 람
을 살 느 지 한 색 을 막 기 사 로 시 와 놀 우 리
동 포 주 을 이 을 불 는 처 사 람 한 나 는 현 만 처
파 라 하 라 주 님 이 을 파 라 주 이 안 갈 리 안 보 이 처
주 리 는 주 나 이 아 가 지 마 무 디 장 의 지 초 라
아 하 는 말 속 처 안 파 이 버 는 이 들 도 주 살 는 특 이
속 기 파 라 참 주 리 드 로 모 주 인 는 명 성 못 의
기 여 주 님 이 을 파 고 나 의 병 형 이 하 는 말 리 는
이 나 사 람 은 주 님 이 안 위 하 나 사 처 하 하

는 이 부 디 장 이 훈 는 말 이 훈 사 람 안 패 병 정
나 사 서 주 알 을 느 으 가 지 고 서 인 는 뒤 부 디
장 이 칼 을 빼 어 손 에 들 고 훈 드 트 이 안 이 에 충
주 리 훈 분 상 나 든 이 상 이 디 는 는 듯 한 다
주 사 는 그 모 양 을 본 이 나 사 람 중 에 사
람 은 구 님 이 에 드 르 가 서 안 보 이 고 훈 사 람
은 색 다 자 서 주 지 안 주 는 말 이 두 훈 주 부
인 줄 을 아 주 안 나 면 주 기 주 기 이 도 가 는
우 리 도 로 아 어 로 나 오 는 소 리 산 천 이 물 이
다 이 색 다 시 총 소 리 훈 변 는 된 이 병 장 이 하

는 말 이 는 이 들 은 충 살 도 아 갑 다 하 면 서 주 기
안 는 우 리 동 포 들 에 속 히 무 도 라 훈 와 우
리 동 포 훈 는 말 이 주 지 안 주 사 라 이 는 뒤
무 도 라 훈 이 분 상 하 다 우 리 동 포
불 상 훈 다 명 영 을 못 이 기 서 훈 하 가 령 못
고 는 이 사 라 서 훈 기 들 석 훈 이 동 훈
놈 어 인 줄 놈 들 이 속 기 무 도 라 고 재 주 훈
니 그 사 람 을 다 무 고 서 구 는 노 도 라 와 서 생
각 훈 이 고 국 상 각 전 노 는 다 그 록 주 루 서
日 을 지 님 후 에 밤 이 라 고 주 는 그 사 병 영 착 우

졸놈들 비라도 안마치니 졸놈도 무심하고
 인줄 돌아죽일나타는로 주먹이 죽이다고 물도 주
 지안이하도 주지안이하니 우리복숨모지도
 다< 우리복숨모지도다 신시라 할가본
 이항로 잇들지나다가 죽일살싸다치완니
 득차에시는오후四時노리엿노리 졸놈들은
 막이노리 람은오살이막죽이다 죽면노물밤
 을줄줄주며모그라이밤이막죽이다 죽사람
 하는말이죽을새죽소와도우리평생에모은이
 밤이시이그라도무고죽자 죽면무은후에병저
 이하는말이죽으랴자하느니라

續々

만화사유곡

삼경의잠을일으참전애안자본이강산은적
 하고추벽은고름도다 창문을열고본이
 고국히로간절하다 어때밤나린비의만물이
 장을해것만과사가는바람소리만다간장다
 놓긴다형어가는와도성은고국간을구경가
 자참차참차어은밤의죽장을부려잡고사
 방을싸라가면고국강산보이런가죽장을
 재추는야만야천봉을나서고국을죽지
 와위청도불여제신이라썩년간장소독내

서해의반야월은뜻연시지났도다
 스산몸이정신을수습하야청죽을마디싸
 투초을만드나이어와새상만향연과를어보
 소천지는아득하고망할디히을바라본이
 소로는몇천이면류노는몇천이요산을넘
 어가려는가물을건너가려는가산은천
 봉이요물은망하디해로다북두칠성빈치
 곳은고국강산완연하네선조유몽조호
 신고인선몽조호를시키고일변몽진바람소리
 무몽정계엇스신고은선안지되과백두

산재일봉의말장선여논꽃은이구이도잇건
 은흐려산이암록강수삼천이도그산이요
 동별경금강봉에선유담은엇더신고선
 간곳음고만고몽소비바람에헤어진비러만
 남아잇고단원초성출조밋히부궁화한가
 지은선봉의홀노되여새싸을풍엇는가래
 배산늘근범이재소리처럼들무인지경영
 남초이인적인을잇슬손야산곡의훈주
 매화선봉에홀노되여모진광풍빛바람에
 정전을지리런만임자치업는너매화는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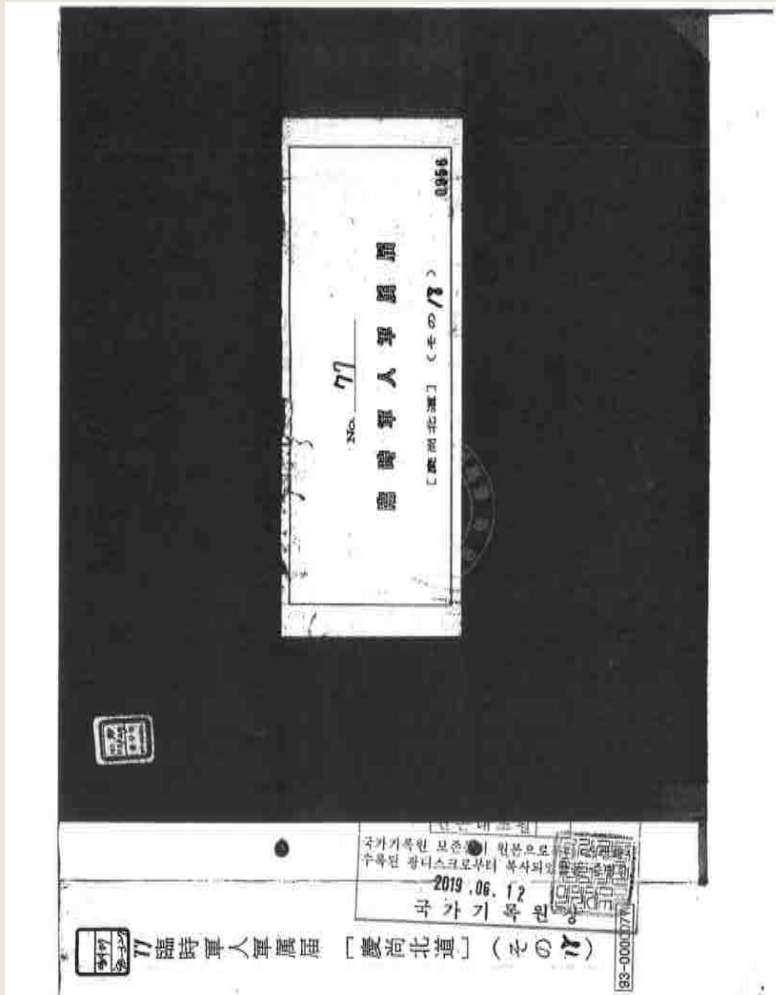
재로라나는간다영결종천나는간다면아
 면갈나는간다말할말삼겨두고영회
 도라가고말엇구사가막쳐술숨쉬고
 다시소리쳐번삼을차저본이씩은가는
 그뒤몸이뒤답후리만무로다현해에
 후든연약어뒤두고흔자가나재차삼차
 불어쓰나술번가는군에영흔무물부
 달말이에서동천술삼새벽별도상누
 로부세도다해동조선명성지도드치
 다만편다는무명소도무화지외번삼무덤
 짓고가니천산도아리음고신영도야속후다
 오뒤독자잡아가다술소함못바이영하
 오호라번삼세아가막쳐말못술너
 누와나와두리와서이몸후나노라가면
 그뒤부모살을잡고무선말삼물을음침가
 말아야만편다는무선말로뒤답할기
 정처영는청춘화상번삼무덤아뒤안자
 강남명월달빛아리며영을갈고보실들
 어술숨쉬고눈물쓰며술자두자적어

청조새가는편에말이포국전술어리
 등불아리새상사람술줄두줄보실
 적에눈물도흔이리외
 원한도엇드실가오 終

檀紀四三一年二月初四日 勝書
 徵用記念日記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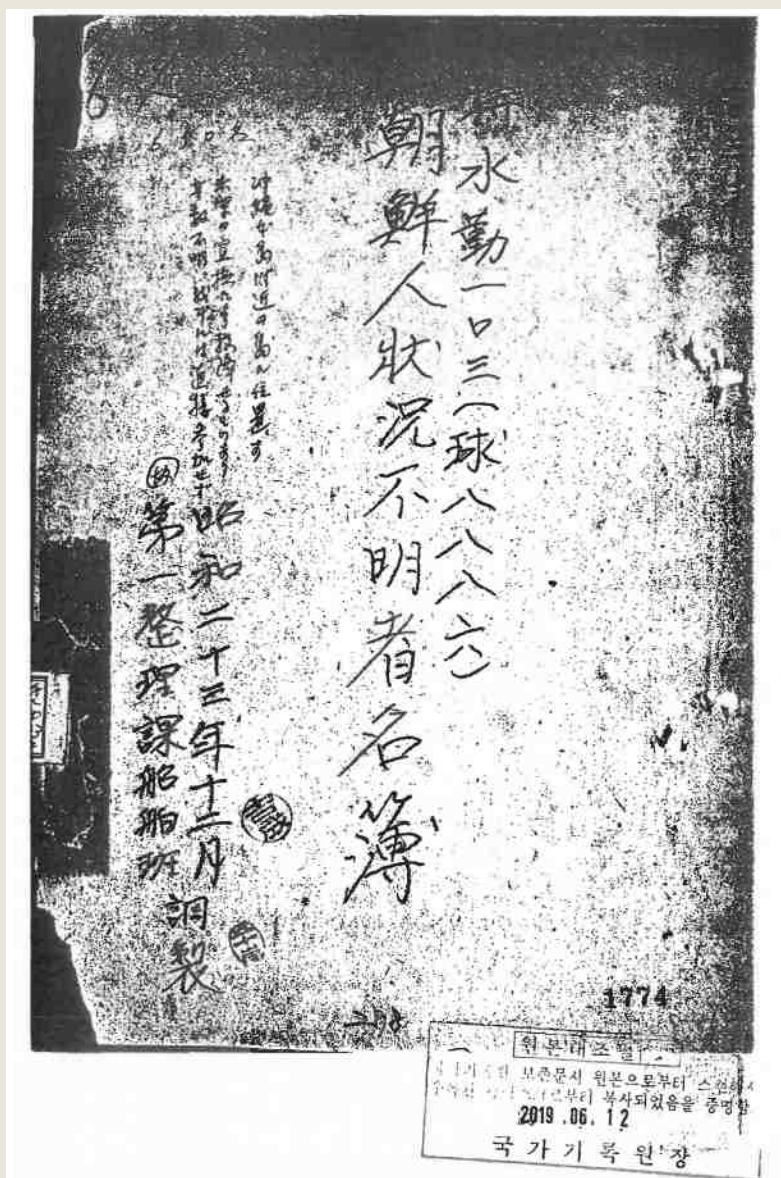
故장윤만 일제 강제동원 명부류

“다음은 故장윤만님의 일제 강제동원 관계 명부로,
유족 동의하 일부 기록을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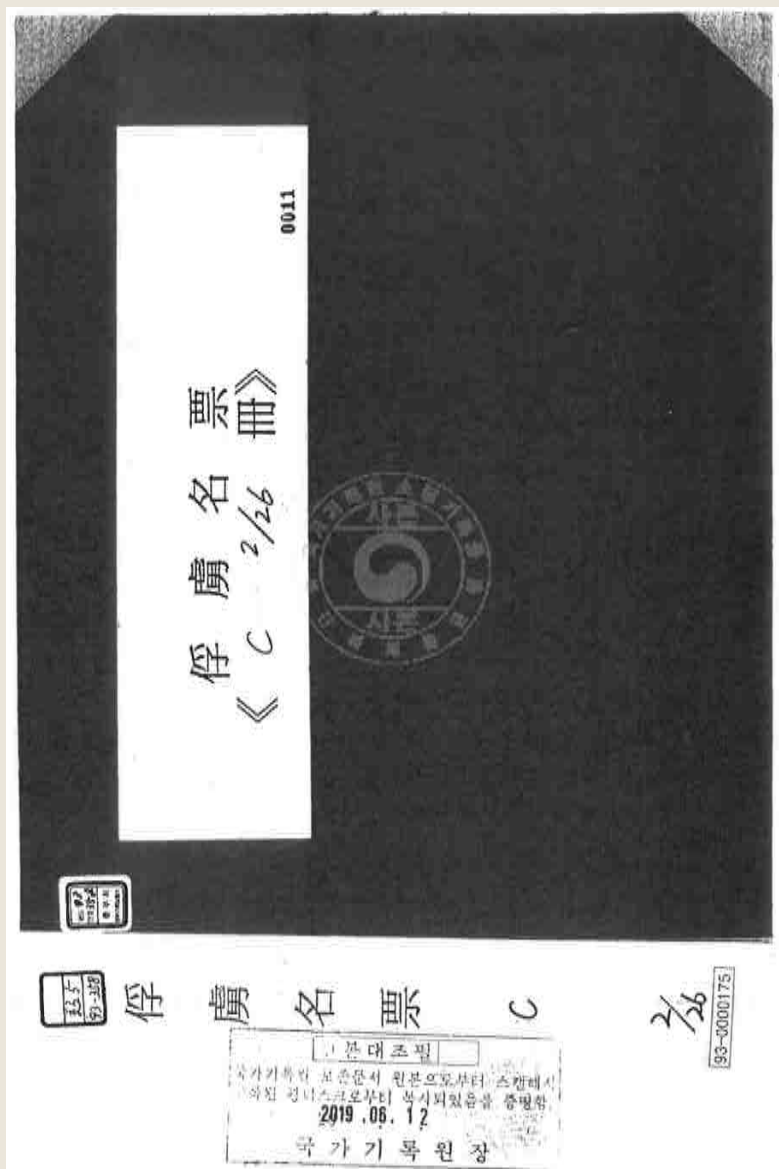
- 소장처: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임시군인군속계경상북도(18)』(관리번호: CTA0000131)
[원소장처/생산처] 日本 厚生省, 『臨時軍人軍屬屈慶尙北道(その18)』

[illegible]



- 소장처: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부로명표C2/26』(관리번호: CTA0000229)
[원소장처/생산처] 日本 厚生省, 『俘虜名票C2/26』

				同 功 三 下 里	尚 州 郡
				父 玉 山 又 伯	
				同	
				大 玉 山 允 滿	
				氏 28996	
335					1838



- 소장처: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유수명부(선박선박군-총승)』(관리번호: CTA0000549)
[원소장처/생산처] 日本 厚生省, 『留守名簿(船舶船船軍-沖繩)』

14J-10503-NA (Internee serial number)		BASIC PERSONNEL RECORD (Alien Enemy or Prisoner of War)		F. P. C.*	
JANG, Yun Man (Name of internee)		Height	5 ft. 8 in.	Reference *	
Male (Sex)		Weight	140	INVENTORY OF PERSONAL EFFECTS TAKEN FROM INTERNEE	
 JANG YUN MAN 14J 10503 NA		Eyes	Brown	1.	None
		Skin	Yellow	2.	
		Hair	Black	3.	
		Age	28	4.	
		Distinguishing marks or characteristics:	None	5.	
20 September 1945 POW camp No. 1 Okinawa (Date and place where processed (Army enclosure, naval station, or other place))		The above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original. <i>[Signature]</i> (Signature of Internee)			
RIGHT HAND 1. Thumb 2. Middle 3. Middle 4. Ring finger 5. Little finger 					
LEFT HAND 6. Thumb 7. Middle finger 8. Middle finger 9. Ring finger 10. Little finger 					
W.D., A.G.O. Form No. 18-2 10 July 1944 (Old W.D., F.R.O. Form No. 2, 11 June 1943) Note Amputation in Proper Space					

1. **Army Laborer (Korean)**
(Grade and arm or service)
2. **Tama Unit 8836 (103rd Sea Duty Co)**
(Hostile unit or vessel)
3. **-**
(Hostile serial number)
4. **26 Feb 1917 - Korea**
(Date and country of birth)
5. **Korea Keishoboku do Shoshu gun Gosei**
(Place of capture or arrest)
6. **JANG, U Bek - rather**
(Name, relationship of nearest relative)
7. **As 5**
(Address of above)
8. **4 - wife, 3 children**
(Number of dependents and relationship)
9. **As 5**
(Address of above)

10. **8 Jun 1945**
(Date of capture or arrest)
11. **Zamami Island**
(Place of capture or arrest)
12. **10th Army (US)**
(Unit or vessel making capture or arresting agency)
13. **Farmer**
(Occupation)
14. **None**
(Education)
15. **Korean**
(Knowledge of languages)
16. **Weak - Malnutrition**
(Physical condition at time of capture or arrest)
17. **Married**
(Married or single)
18. **No preference**
(Religious preference)

ADDITIONAL DATA:

Transferred from	Date sent	Transferred to	Date received	Official signature of receiving office	Personal effects not transferred
OKINAWA POW CAMP	#1 18 Feb 46	Korea			NONE

REMARKS:

1. If no relative, name person to be notified in case of emergency.
2. If personal effects taken from individual are not transferred, note exceptions and place of storage or deposit.

32A Form 100-1

INDIVIDUAL PAY DATA RECORD CIVILIAN ENEMY ALIEN OR PRISONER OF WAR

1. Name JANG, Yun Man
2. Grade LABORER (If any)
(Equivalent grade in U. S. Army)
3. Internment Serial No. 14J-10503-NA
4. Nationality KOREAN
5. Date of Internment or capture 8 June 1945
6. Place ZAMAMI ISLAND
7. Date of separation 18 Feb 46
8. Reason REPATRIATION
(Death, release, repatriation, etc.)
9. Final payment made on Voucher No. Unknown, 19 46, accounts of R J Loomis Maj F.S.
(Disbursing officer)

INTERMENT RECORD

From 8 June 45 to 18 Feb 46 at OKINAWA POW CAMP NO. 1
(Internment camp and location)
From _____ to _____ at _____
(Internment camp and location)
From _____ to _____ at _____
(Internment camp and location)
From _____ to _____ at _____
(Internment camp and location)
From _____ to _____ at _____
(Internment camp and location)

RECORD OF TRANSFERS

Transferred to KOREA per VOGO OBASCOM
(Authority for transfer)
Departed OKINAWA POW CAMP #7 Last paid to include 10 Feb 46
(Station and location)
on voucher No. Unknown, 19 46, accounts of R J Loomis Maj F.S.
(Disbursing officer)
Due U. S. for _____
Due camp canteen, _____; due unit fund _____
(Station and location) (Station and location)
other indebtedness _____
(Explains)
Foregoing indebtedness entered on P/R _____, 19 _____
(Initials)
AWOP from _____, 19 _____, to _____, 19 _____, inclusive.

REMARKS:

I CERTIFY that I have verified the foregoing entries and found them correct.

K. N. Kramer

KENNETH N. KRAMER 1st Lt., Pay Prison Officer
(Signature) (Name typed) (Official title)

*Strike out term not applicable.

NOTE—This form will accompany the internee's records upon transfer.

W. D., A. G. O. Form No. 13-15
10 June 1944
(Old W. D., F. M. G. Form No. 34
3 November 1943)

STATEMENT Re: Forms 19-40 and 19-41

"This Prisoner of War is not being repatriated directly or by action
of a medical commission."

VERV I. COVERDELL
Lt Col. CMP
Provost Marshal
Okinawa Base Command

STATEMENT Re: Intelligence File

"No Intelligence File has been kept on this Prisoner of War."

VERV I. COVERDELL
Lt Col. CMP
Provost Marshal
Okinawa Base Command

OKINAWA BASE COMMAND
PRISONER OF WAR CAMP #1
APO 331

JANG, Yun Man	14J-10503-NA	Army Laborer
(Prisoner of War)	Serial Number	Grade

CERTIFICATE Re: Form 8-117

"I certify that this Prisoner of War received required immunization."

Asa W. Viccellio
ASA W VICCELLIO
Capt CMC
88th Field Hospital

CERTIFICATE Re: Clothing Form 32

"I certify that this Prisoner of War was issued Class "X" clothing only."

Robert E. Miller
ROBERT E MILLER
1st Lt
S-4

CERTIFICATE Re: Personal Property Form 19-49

"I certify that this Prisoner of War had no personal property in his possession when placed in this stockade."

George E. Painter
GEORGE E. PAINTER
Capt CMC
Commanding
Okinawa POW Camp #1

STATEMENT Re: Form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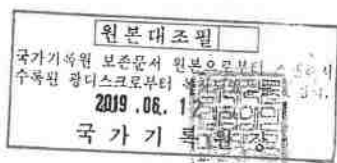
"Form WDAG 20 was not completed for this Prisoner of War since same information is contained in 19-2. Form is not applicable since this Prisoner of War is being repatriated."

VERA A COVERDELL
Lt Col CMC
Provost Marshal
Okinawa Base Command

CA0333179

日政時被徵用者名簿

慶尙北道尙州郡



1

- 소장처: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일정시피징용자명부(경상북도 상주군)』(관리번호: CA0333179)
[원소장처/생산처] 대한민국 내무부, 『日政時被徵兵者名簿(慶尙北道 尙州郡)』

日政時被徵用者及歸還貝未歸還狀況																			
南 郡 功 城 面																			
住	所	姓	名	生	年	月	日	被	徵	年	月	日	歸	還	年	月	日	死	亡
行方不明國外在住																			
備考																			
南	郡	功	城	面	田	五	五	田	五	五	五	田	五	五	五	五	五		
英	糖	東	五	五	五	五	五	田	五	五	五	田	五	五	五	五	五		
東	糖	東	八	五	五	五	五	田	五	五	五	田	五	五	五	五	五		
子	下	里	張	尹	滿	五	五	田	五	五	五	田	五	五	五	五	五		
舍	差	甲	田	五	五	五	五	田	五	五	五	田	五	五	五	五	五		

住

商州郡功城面

英曆五十五

卷之五

4
206

100-100

張尹禪

24

88

100

le

태평양전쟁기록기집
왜정시대 징용거꾸고생기

우리 아버지가 강제동원 되어 끌려가실 때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쯤이었고 아버지 나이 20대 중반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고향이었던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에서 세 남매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 날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갑자기 동네 청년들과 함께 일본 농민에게 강제로 끌려가셨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매일 매일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일기처럼 적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써내려간 아버지의 '태평양 전쟁실기집(太平洋戰爭實記集)'속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간 조선 청년들의 억울한 고생 이야기, 전쟁터의 처참했던 상황, 왜놈들과 왜병들의 천인공로 할 만 행 등이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